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 2024. 9.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이 정 민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2024. 9.

연구책임자 이 정 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한 중 석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연구보조원 신 현 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과제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9.

산 업 조 직 학 회

〈목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II.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5
1. 기존 수입 추계 모형	5
가. 기존 모형 정리	5
나. 개선방안	6
2.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7
가.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계 고도화	8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추계 고도화	13
III. 건강보험 수입 추계를 위한 현황	17
1. 직장가입자 관련 현황	17
가. 보험료 납입자 현황	17
나. 보험료 현황	24
2. 지역가입자 관련 현황	29
가. 보험료 납입자 현황	29
나. 보험료 현황	31
IV. 건강보험 수입 추계 결과	37
1. 건강보험 수입 및 보험료 추계 결과	38
2. 납입자 추계 결과	40

V. 시나리오 분석	43
1. 시나리오1 - 고령 고용률 증가	46
2. 시나리오2 - 여성 고용률 증가	56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5

〈표 차례〉

[표 1] 건강보험 수입 추계를 위한 전망 전체	37
[표 2] 연령별 고용률 변화 : 2015 - 2023년	46
[표 3] 고령 고용률 증가 시나리오 - 2042년 기준	47
[표 4] 건강보험 총수입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49
[표 5] 건강보험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51
[표 6] 건강보험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53
[표 7] 직장가입자수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55
[표 8] 성별 고용률 변화 : 2015 - 2023년	56
[표 9] 건강보험 총수입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58
[표 10]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60
[표 11]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62
[표 12] 직장가입자 수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64

〈그림 차례〉

[그림 1]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시계열 : 2007년-2023년	17
[그림 2]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2023년	18
[그림 3]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전체	18
[그림 4]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남성	19
[그림 5]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여성	20
[그림 6] 연령별 고용률 - 2023년	21
[그림 7] 연령별 고용률 - 전체	21
[그림 8] 연령별 고용률 - 남성	22
[그림 9] 연령별 고용률 - 여성	22
[그림 10]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2023년	23
[그림 11]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전체	23
[그림 12]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남성	24
[그림 13]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여성	24
[그림 14] 직장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시계열 : 2007 - 2023년	25
[그림 15]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2023년	25
[그림 16]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전체	26
[그림 17]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남성	26
[그림 18]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여성	27
[그림 19]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2023년	27
[그림 20]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전체	28
[그림 21]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남성	28
[그림 22]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여성	29
[그림 23]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시계열 : 2007년-2023년	29
[그림 24]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2023년	30
[그림 25]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전체	30
[그림 26]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남성	31
[그림 27]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여성	31
[그림 28] 지역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시계열 : 2007 - 2023년	32
[그림 29] 지역가입자 1인당 보험료 - 2023년	32
[그림 30] 지역가입자 1인당 보험료 - 전체	33
[그림 31] 지역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 남성	33
[그림 32] 지역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 여성	34
[그림 33]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2023년	34

[그림 34]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전체	35
[그림 35]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남성	35
[그림 36]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여성	36
[그림 37] 건강보험 총수입 전망 비교	38
[그림 38] 건강보험 보험료 전망 비교	39
[그림 39] 직장가입자 납입자 전망 비교	40
[그림 40] 지역가입자 납입자 전망 비교	41
[그림 41] 시나리오1 - 총수입 전망	47
[그림 42] 시나리오1 - 보험료 전망	49
[그림 43] 시나리오1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51
[그림 44] 시나리오1 - 직장가입자수 전망	53
[그림 45] 시나리오2 - 총수입 전망	55
[그림 46] 시나리오2 - 보험료 전망	57
[그림 47] 시나리오2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59
[그림 48] 시나리오2 - 직장가입자수 전망	61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감소하는 반면,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구조 고령화로 건강보험료 납부의 주요 대상자인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건강보험 지출의 주요 수혜자인 고령층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인구구조 구성비 변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지만, 현행 법규상 보험료율 상한이 존재하고 국고지원이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제약 요인이 있음
 - 보험료율은 8%의 법정 상한 규정이 있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로 인한 재정 수입 확대에 제약이 발생함
 -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6%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2027년 일몰되는 한시 규정임
 - 제도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수입 전망이 필요함

-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

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건강보험 수입 전망이 필요함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평가소득 폐지 등이 이루어졌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재산 및 자동차 기반 보험료의 축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득-재산 부과체계가 보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됨
-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편은 기존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부과점수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연령별 부과점수 프로파일을 추정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와 건강보험의 제도적 특성, 최근 이루어진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법규상 보험료를 상한과 최근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고, 가입유형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추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계는 고용률에 따라 납입자가 변화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1인당 보수월액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가입자는 2018년과 2022년 2차례 걸쳐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연령별 보험료와 부과점수 프로파일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를 고려해 연령별 부과점수 프로파일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 현황 자료를 분석해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을 고도화함

□ 가입유형별, 가구형태별 보험료를 결정요인과 부과체계 개편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 수입 전망 모형 정리

- 기존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들은 의료비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지출을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김윤희 (2017), 이태진 (2020), 김성훈 외 (2022))
- 건강보험 수입 전망은 조성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출 전망에 비해 덜 고도화됨
- 기존의 건강보험 수입 전망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파악함

□ 앞서 분석한 가입유형별 연령별 납입자 현황과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과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 프로파일과 중장기 재정전망에 활용되는 인구 및 거시경제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구축해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을 개선함

- 인구구조 변화나 노동시장 변화(고용률 프로파일 변화) 등을 반영하고, 1인당 (명목) GDP 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함
- 보험료 전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전망하는데, 기본적으로 납입자 수와 1인당 보험료를 결합해서 보험료를 전망하는 구조는 유사하기 때문에 납입자 수와 1인당 보험료 전망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직장가입자) 연령별 납입자 수와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을 전망해 보험료율 전망과 결합해서 전망하도록 구성하고 연령별 납입자 수와 1인당 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함
 - 기존 모형과는 달리 남녀로 세분화해 납입자 수와 1인당 보수월액을 전망함
 - (납입자 수 전망) 총인구 대비 납입자 비중을 총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고용률)과 취업자 중 직장가입자 비중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연령별 프로파일을 추정 한 뒤 연령별 인구전망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령별 납입자 수를 전망함
 - (1인당 보수월액 전망)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프로파일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프로파일이 1인당 명목 GDP 성장률에 의해서 증가하는 방식으로 전망함
- (지역가입자) 연령별 납입자 수와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를 전망해 부과점수당 금액과 결합해서 전망하도록 구성하고 연령별 납입자 수와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함

- (납입자수) 연령별 총인구 중 가입자 비중을 추정해 연령별 인구전망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령별 납입자 수를 전망함
- (1인당 부과점수) 연령별 1인당 보험료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이용해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 프로파일을 생성한 뒤,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의 프로파일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프로파일이 1인당 (명목) GDP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망함
-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 프로파일 추정 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진 2022년 이후의 프로파일을 추정함

□ 새로 구축된 전망 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 분석 시행

- 새로 구축된 전망 모형은 연령별 고용률이 모형에서 별도로 고려되기 때문에 고용률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함
- (기준시나리오) 인구 중위 추계에서 연령별 고용률과 노동소득 프로파일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고, 국고지원금 비중이 최근 3년 평균으로 유지
- (시나리오 1) 고령 고용률 증가추세 반영
- (시나리오 2) 여성 고용률 증가추세 반영

II.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1. 기존 수입 추계 모형

가. 기존 모형 정리

- 기존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은 임슬기(2023)과 김윤희, 우경숙(2024)의 모형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함
- (개요)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기타수입으로 나누어 추계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추계함
 - 각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유형별로 납입자 수와 보험료를 곱해서 추계한 뒤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해서 추계함
 -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 지원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해서 추계하고 각 보험료 대비 지원금 비중의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을 적용해서 추계함
-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자 수에 월보험료와 납부 개월 수를 곱해서 추계
 - (납입자 수) 추계인구와 추계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을 전망해 추계함
 - 인구 대비 납입자 수 비중은 5세 간격 연령별로 증감 경향을 반영해 전망함
 - 추계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함
 - (1인당 보험료) (1인당 평균 보수월액×12개월)에 보험료율 전망을 곱해서 전망함
 - 1인당 평균 보수월액은 연령별로 시계열 추정을 통해서 전망함
 - (보험료율) 2021년부터 2023년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서 전망함
 - 보고서에 따라 8% 상한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입자 수에 가구당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추계

- (납입자 수) 추계인구와 추계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을 전망해 추계함
 - 인구 대비 납입자 수 비중은 5세 간격 연령별로 증감 경향을 반영해 전망함
 - 추계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함
- (가구당 부과점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이 있으므로 시계열 추정 대신 2018 - 2021년간 증가율을 적용해 추계함
- (부과점수당 금액)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서 전망함

나. 개선방안

-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 개선은 보험료 추계 모형을 개선에 초점을 둠
 - 국고지원금과 기타수입 추계 방법은 기존 방법을 적용함
 - 기존 보험료 추계 모형은 납입자 수와 보험료액 추계 모형을 개선함
- 기존 모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납입자 수 추계) 가입자 유형별로 연령별 총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을 전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변화를 고려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이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고용률에 대한 시나리오 적용이 어려움
 - 연령별 구분은 되어 있지만,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 증가와 같은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
 - (1인당 보수월액 추계) 1인당 보수월액 전망에서 ARIMA 모형을 적용하면서 장기 재정전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장률 전망 등을 활용하는데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 건강보험 수입 추계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전제인 성장률 등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함
 - (1인당 부과점수 추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1인당 부과점수 변화를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부과점수의 변화를 전망하는데도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계 모형을 개선함
 - (납입자수) 연령별 구분뿐만 아니라 성별로 구분해서 납입자 수를 추계하고, 총인구 대비 납입자 비중은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납입자 비중으로 단계를 구분해서 전망하는 방향으로 모형을 개선함
 - (1인당 보수월액) 연령별 구분과 더불어 성별로 구분해 전망하고, 성별-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프로파일은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프로파일이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개선함
 - (1인당 부과점수) 연령별 구분과 더불어 성별로 구분해 전망하고, 성별-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 프로파일은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프로파일이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개선함

2.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가.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방법

- 건강보험 수입 전망은 (1) 보험료 수입, (2) 국고지원금, (3) 기타수입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 보험료 수입 전망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1인당 보험료를 전망한 뒤 이들을 곱해서 보험료 수입을 전망함
 - 국고지원금과 기타수입은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과 기타수입 비중의 최근 3년 평균을 전망된 보험료 수입에 곱해서 전망함
 -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기타수입 전망을 합산해 전망함

- 보험료 전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각각 전망하고,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각 부문을 전망할 때 연령군뿐만 아니라 성별로 구분해서 전망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입자 수 전망을 결정하는 (1) 연령별 고용률 형태와 (2) 연령별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이 남녀 간에 차이를 보임
 - 1인당 월보험료와 1인당 보수월액의 연령별 형태 역시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해서 전망함
 - 성별 구분은 보험료 수입 기준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형태의 변화나 성별 임금 격차 변화 등이 보험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심층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보험료 전망에서 가입자 수 전망과 1인당 보험료 전망방법을 기존 연구들보다 더 정교하게 구성함
- 가입자 수 전망은 성별-연령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의 형태를 유지하고 시간 추세를 고려해 전망 시점에 따라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이 상향이동하는 방식으로 전망함
 - 1인 보험료 전망 역시 가입자 수 전망과 유사하게 성별-연령별 1인당 보험료의 형태를 유지하되 전망 시점에 따라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지만, 시간 추세 대신 일인당 명목 GDP를 고려해 프로파일 이동을 고려함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구분해서 논의함
- 국고지원금과 기타수입은 총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뒤 일정 기간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망함
-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기금(담배부담금)으로 구분해 총보험료에 대한 비중을 산출한 뒤 최근 3년 평균 비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전망된 총보험료에 적용함
 - 기타수입도 총보험료에 대한 비중을 산출한 뒤 최근 3년 평균 비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전망된 총보험료에 적용함

나.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계 고도화

- (가입자 수) 성별-연령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은 (1)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과 (2)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으로 구분해 각각 전망한 뒤 이 두 변수를 곱해서 전망함

$$\frac{\overline{\text{가입자}}_{s,j,t}}{\overline{\text{인구}}_{s,j,t}} = \frac{\overline{\text{취업자}}_{s,j,t}}{\overline{\text{인구}}_{s,j,t}} \cdot \frac{\overline{\text{가입자}}_{s,j,t}}{\overline{\text{취업자}}_{s,j,t}} = \overline{\text{고용률}}_{s,j,t} \cdot \frac{\overline{\text{가입자}}_{s,j,t}}{\overline{\text{취업자}}_{s,j,t}}$$

- 위 식에서 s 는 성별, j 는 5세 간격 연령군, t 는 전망 시점
- $\overline{\text{고용률}}_{s,j,t}$ 와 $\frac{\overline{\text{가입자}}_{s,j,t}}{\overline{\text{취업자}}_{s,j,t}}$ 는 t 시점의 전망값으로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추정함

- (고용률)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은 연령군 더미와 시간추세를 이용해 추정한 뒤, 추정된 연령군 더미만 이용해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을 전망함

- (추정) 남녀로 구분해 최근 일정 기간(예) 10년) 연령별 고용률 자료를 이용해 아래 식을 추정함

$$\text{고용률}_{j,t} = \sum_{j \in \text{연령군}} \alpha_j + \gamma_1 \cdot (t - T) + u_{j,t}, \quad T: \text{관측치 마지막 연도}$$

- 기준연령: 45-49세, 기준시점 $T=2023$ 년

- 고용률 :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

- (전망) 연령별 고용률 전망은 시간 추세를 제외하고 연령 더미만으로 전망

$$\overline{\text{고용률}}_{j,t} = \hat{\alpha}_j$$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령별 고용률 프로파일은 시간에 따라 상향이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 고용률 프로파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연령별 고용률 프로파일에 시간 추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연령별 고용률은 이동하지 않고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연령별 고용률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는 대신 장기경제전망에서 전망된 연령별 고용률 전망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 정책 시뮬레이션에서 여성 고용률 변화는 (1) 연령별 고용률 프로파일 변화 (M자 형태 ⇒ 역 U자 형태)와 (2) 연령별 고용률 프로파일 이동 (여성 고용률 증가추세)로 구분해서 적용 가능

□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은 연령군 더미와 시간 추세를 이용해 추정한 뒤, 추정된 연령군 더미에 시간 추세까지 적용해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을 전망함

- (추정) 남녀로 구분해 최근 일정 기간(예) 10년) 연령별 취업자 대비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아래 식을 추정함

$$\frac{\text{가입자}}{\text{취업자}_{j,t}} = \sum_{j \in \text{연령군}} \beta_j + \gamma_2 \cdot (t - T) + u_{j,t}, \quad T: \text{관측치 마지막 연도}$$

- 기준연령: 45-49세, 기준시점 $T = 2023$ 년
- 취업자수: 경제활동부가조사,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전망) 연령별 취업자 대비 가입자 전망은 연령 더미에 시간 추세를 고려해서 전망

$$\overline{\frac{\text{가입자}}{\text{취업자}_{j,t}}} = \hat{\beta}_j + \hat{\gamma}_2(t - T)$$

- 연령별 취업자 대비 가입자 프로파일의 형태는 일정하게 유지($\hat{\beta}_j$)되지만, 시간 추세($\hat{\gamma}_2$)가 고려되기 때문에 프로파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향이동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령별 취업자 대비 가입자는 시간에 따라 상향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함
- 취업자 대비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수로 볼 수 있음

□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 전망된 $\overline{\text{고용률}}_{s,j,t}$ 와 $\frac{\overline{\text{가입자}}_{s,j,t}}{\overline{\text{취업자}}_{s,j,t}}$ 로 전망함

$$\frac{\overline{\text{가입자}}_{s,j,t}}{\overline{\text{인구}}_{s,j,t}} = \overline{\text{고용률}}_{s,j} \cdot \frac{\overline{\text{가입자}}_{s,j,t}}{\overline{\text{취업자}}_{s,j,t}}$$

-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는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임
- 기존 연구 전망방법들은 $\overline{\text{가입자/인구}}_j$ 를 직접 추정한 뒤, 이 프로파일을 과거 추세를 이용해 상향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망함
 -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을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평균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연령 더미를 이용해 추정하는 방식과 유사함
 - 추정된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을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별 프로파일의 이동이 고용률에서 기인한 것인지 $\overline{\text{가입자/취업자}}_j$ 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본 전망방법은 고용률과 $\overline{\text{가입자/취업자}}_j$ 로 구분하고 시간 추세를 $\overline{\text{가입자/취업자}}_j$ 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overline{\text{가입자/인구}}_j$ 의 시간에 따른 이동은 모두 $\overline{\text{가입자/취업자}}_j$ 의 이동에 의한 것임
- $\overline{\text{가입자/인구}}_j$ 프로파일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의 변화로 직장가입자가 적은 고령층의 영향으로 직장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overline{\text{가입자/인구}}_j$ 프로파일을 시간에 따라 얼마나 상향이동시킬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직장가입자 수 전망과 보험료 수입 전망에 중요함

- (직장가입자 수) 전망된 $\overline{\text{가입자/인구}}_j$ 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전망의 $\overline{\text{인구}}_{s,j,t}$ 과 곱해 성별-연령별 직장가입자 수를 전망함

$$\text{직장가입자}_{s,j,t} = \frac{\overline{\text{가입자}}}{\overline{\text{인구}}} \times \overline{\text{인구}}_{s,j,t}$$

- 매년 직장가입자 수는 전망된 성별-연령별 직장가입자 수를 집계해 전망함

- (1인당 보수월액) 로그 1인당 보수월액을 이용해 연령군 더미와 로그 일인당 명목 GDP를 이용해 추정한 뒤, 추정된 연령군 더미와 로그 일인당 명목 GDP를 이용해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을 전망

- 1인당 보수월액 관측 자료는 기존 연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함

$$1\text{인당 보수월액}_{s,j,t} = \text{연도말 산정총보험료}_{s,j,t} \div \text{납부자수}_{s,j,t} \div (0.5 \times \text{보험요율}_t)$$

- (추정) 남녀로 구분해 최근 일정 기간(예) 10년)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자료를 이용해 아래 식을 추정함

$$\ln(1\text{인당보수월액})_{j,t} = \sum_{j \in \text{연령군}} \delta_j + \theta_1 \cdot \ln(\text{일인당 명목 GDP})_t + u_{j,t}$$

- 기준연령: 45-49세

- 일인당 명목 GDP : 한국은행, 통계청

- (전망)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은 연령더미와 로그 1인당 명목 GDP 전망치를 이용해 전망한 뒤 지수를 이용해 변환함

$$\overline{\ln(1인당보수월액)}_{j,t} = \hat{\delta}_j + \hat{\theta}_1 \cdot \ln(1인당 명목 GDP 전망)$$

$$\overline{1인당보수월액}_{j,t} = \exp(\overline{\ln(1인당보수월액)}_{j,t})$$

-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의 프로파일 형태는 $\hat{\delta}_j$ 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시간에 따라 해당 프로파일이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1인당 보수월액은 임금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당 명목 GDP와 상관관계가 높음
 - 보험료가 명목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GDP도 명목 GDP를 사용함
- 더불어 명목 GDP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별도로 전망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1인당 보수월액의 시간 추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함
 - 1인당 명목 GDP 전망치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전망한 명목 GDP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총인구로 나눠 측정함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령별 보험료는 보험료율에 직장가입자 수와 (1인당 보수월액×12개월)을 적용해 전망함

- 보험료율은 정책변수로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8% 상한 규정을 적용함
- 본 연구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2023)에서 사용한 보험료율 전망값을 사용

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추계 고도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2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인상되었고, 2024년에는 208.4원으로 건강 보험료율과 마찬가지로 동결됨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는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됨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평가소득 폐지 등이 이루어졌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재산 및 자동차 기반 보험료의 축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득-재산 부과체계가 보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됨
 -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2022년과 2023년 기존 추세보다 현저히 낮아짐

- (지역가입자수) 성별-연령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을 연령군 더미와 시간 추세를 이용해 추정한 뒤, 추정된 연령군 더미만을 고려해 성별-연령별 프로파일을 전망함
 - (추정) 남녀로 구분해 최근 일정 기간(예) 10년) 연령별 가입자/인구_{j,t} 자료를 이용해 아래 식을 추정함

$$\frac{\text{가입자}}{\text{인구}}_{j,t} = \sum_{j \in \text{연령군}} \eta_j + \gamma_3 \cdot (t - T) + u_{j,t}, \quad T: \text{관측치 마지막 연도}$$

- 기준연령: 45-49세, 기준시점 $T=2023$ 년

- (전망)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 전망은 시간 추세를 제외하고 연령 더미만으로 전망

$$\overline{\frac{\text{가입자}}{\text{인구}}}_{j,t} = \hat{\eta}_j$$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령별 가입자/인구 프로파일은 시간에 따라 상향이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 프로파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연령별 지역가입자는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인구전망을 곱해서 전망함

- (1인당 보험료월액) 1인당 부과점수를 전망하고 여기에 부과점수당 금액 전망을 곱해서 전망함
 - 1인당 보험료월액 관측 자료는 연령별 연도 말 산정 보험료를 지역세대주(비가입세대주제외)로 나누어 측정함
 - 1인당 부과점수는 1인당 보험료 월액을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눠 산출함

- (1인당 부과점수) 로그 1인당 부과점수를 이용해 연령군 더미와 부과체계 개편 더미, 연령군 더미와 개편 더미의 곱과 로그 일인당 명목 GDP를 이용해 추정된 뒤, 추정된 연령군 더미와 개편 더미, 로그 일인당 명목 GDP를 이용해 성별-연령별 프로파일 전망
 - (추정) 남녀로 구분해 최근 일정 기간(예) 10년)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 자료를 이용해 아래 식을 추정함

$$\ln(1인당부과점수)_{j,t} = \sum_{j \in \text{연령군}} \kappa_j + \phi \cdot 1[t \geq 2022] + \sum_{j \in \text{연령군}} \lambda_j \cdot 1[t \geq 2022], \\ + \theta_2 \cdot \ln(\text{일인당 명목 } GDP)_t + u_{j,t}$$

- 기준연령: 45-49세, 일인당 명목 GDP : 한국은행, 통계청

- 1인당 부과점수의 연령별 프로파일이 2022년 개편 이후 이전과 크게 바뀐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연령군 더미와 개편 더미의 곱을 추가로 고려해 추정함
 - 부과체계 개편 시점이 일정 기간 지나서 1인당 보험료 월액 자료가 축적되어 개편 이후 자료만으로 추정이 가능해지면 개편 더미와 연령 더미와 개편 더미의 교차항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음
- (전망)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는 연령 더미와 개편 더미, 연령 더미와 개편 더미 교차항, 로그 1인당 명목 GDP 전망치를 이용해 전망한 뒤 지수를 이용해 변환함

$$\overline{\ln(1인당부과점수)}_{j,t} = (\hat{\kappa}_j + \hat{\lambda}_j) + \phi + \hat{\theta}_2 \cdot \ln(1인당 명목 GDP \text{ 전망})$$

$$\overline{1인당부과점수}_{j,t} = \exp(\overline{\ln(1인당부과점수)}_{j,t})$$

-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의 프로파일 형태는 $(\hat{\kappa}_j + \hat{\lambda}_j)$ 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지

만, 시간에 따라 해당 프로파일이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1인당 부과 점수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1인당 명목 GDP와 상관관계가 높고 장기적으로 전망이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사용함

-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령별 보험료는 연령별 1인당 보험료에 지역가입자 수를 적용해 전망하고, 1인당보험료는 전망된 1인당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전망함

Ⅲ. 건강보험 수입 추계를 위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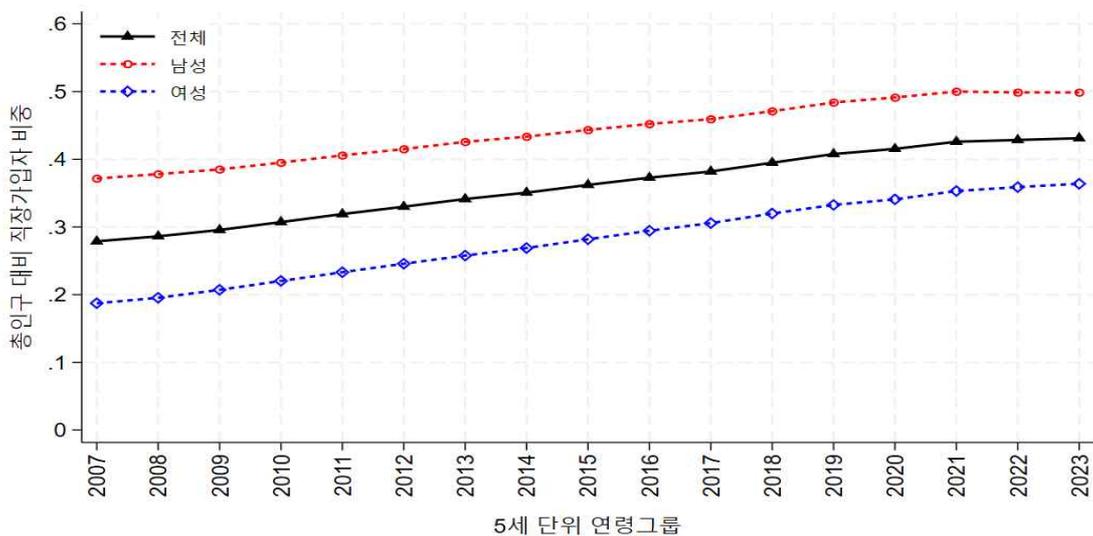
- 본 장은 건강보험 수입 추계에 사용되는 각종 변수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수입 추계 모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건강보험 수입 추계의 핵심적인 부분인 보험료 추계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분석함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자 현황과 1인당 보험료, 1인당 보수월액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서 분석함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자 현황과 1인당 보험료, 1인당 부과점수를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서 분석함

1. 직장가입자 관련 현황

가. 보험료 납입자 현황

-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함

[그림 1]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시계열 : 2007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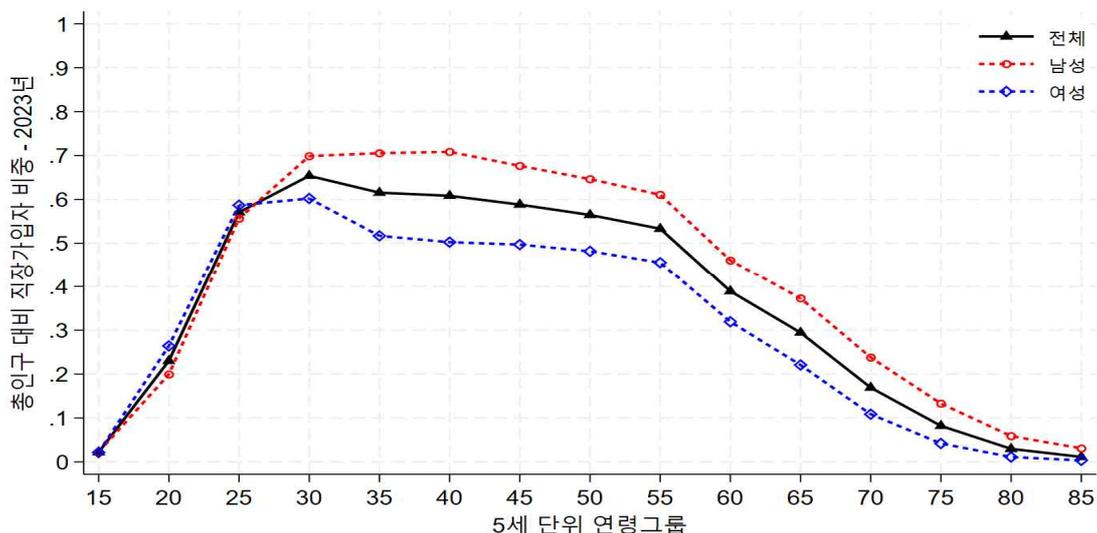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은 2007년 전체 30%에서 2023년 43%로 증가함
-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는데, 남녀 격차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는 총인구 대비 취업자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으로 구분되므로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의 추세 증가는 고용률 증가와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 증가가 모두 기여할 수 있음
 - 고용률 추세는 건강보험 제도나 정책과 무관하게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함
 -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은 건강보험 제도에 영향을 받는 정책변수에 해당함
-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가 건강보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를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2023년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은 역 U자 형태이고, 연령별 프로파일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은 30세에서 가장 높고 55세까지 소폭 감소하다 5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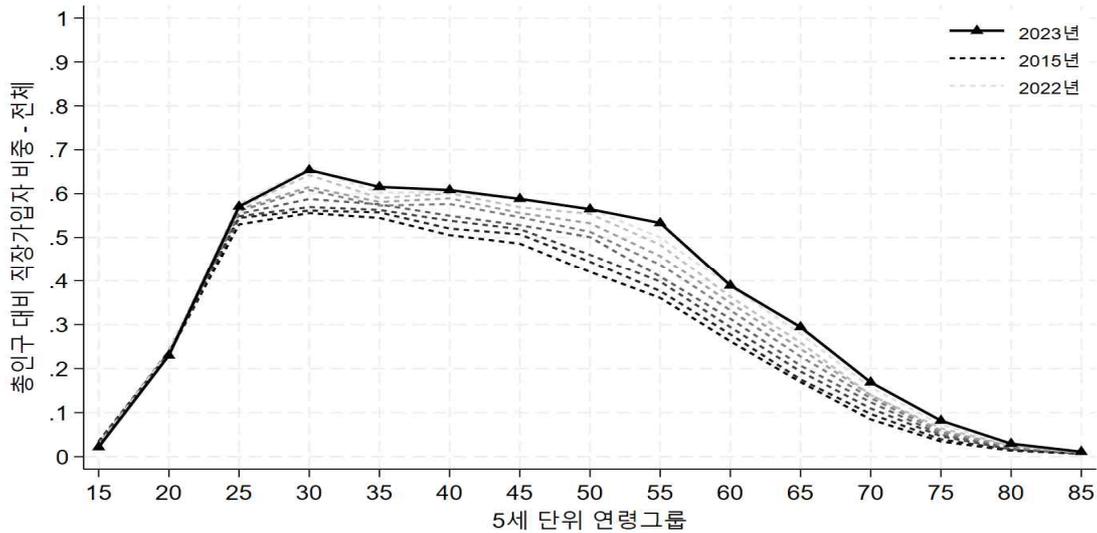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프로파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역 U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3]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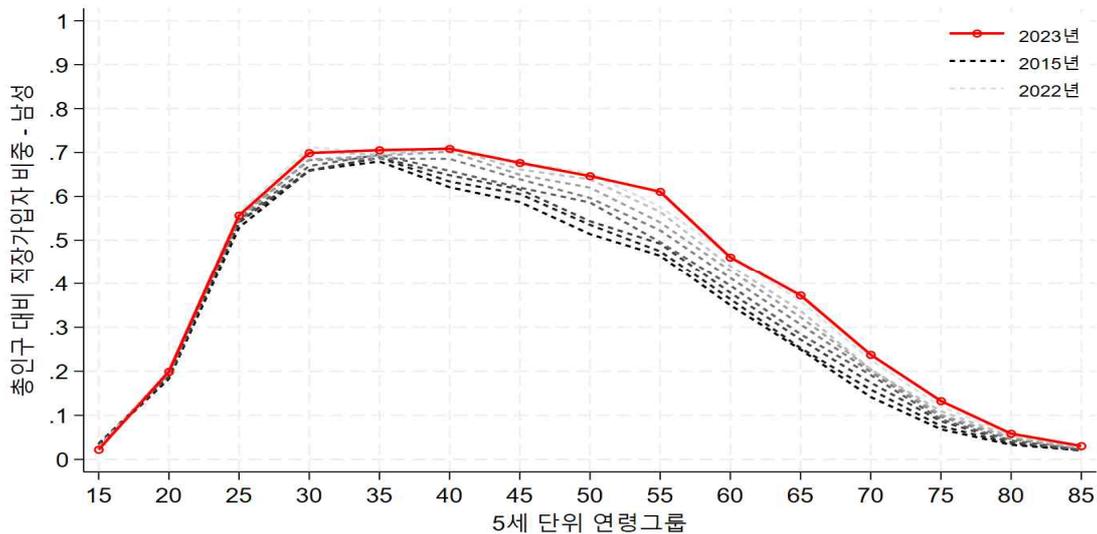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프로파일은 역 U자 형태이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45세 이상에서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해 연령별 프로파일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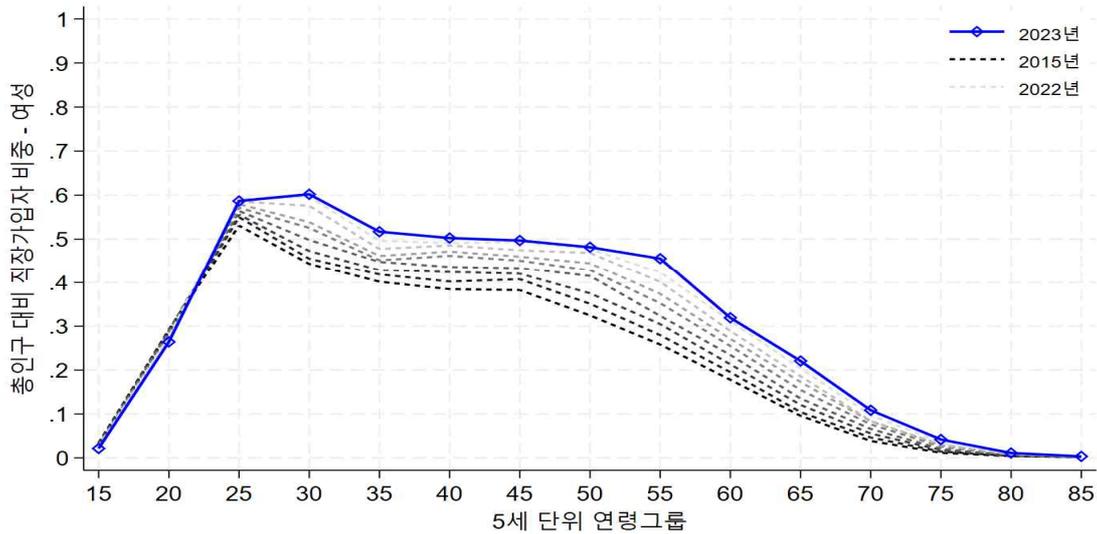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성의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프로파일은 역 U자 형태이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여성은 30세부터 60세 이전까지의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령별 프로파일이 남성에 더 가까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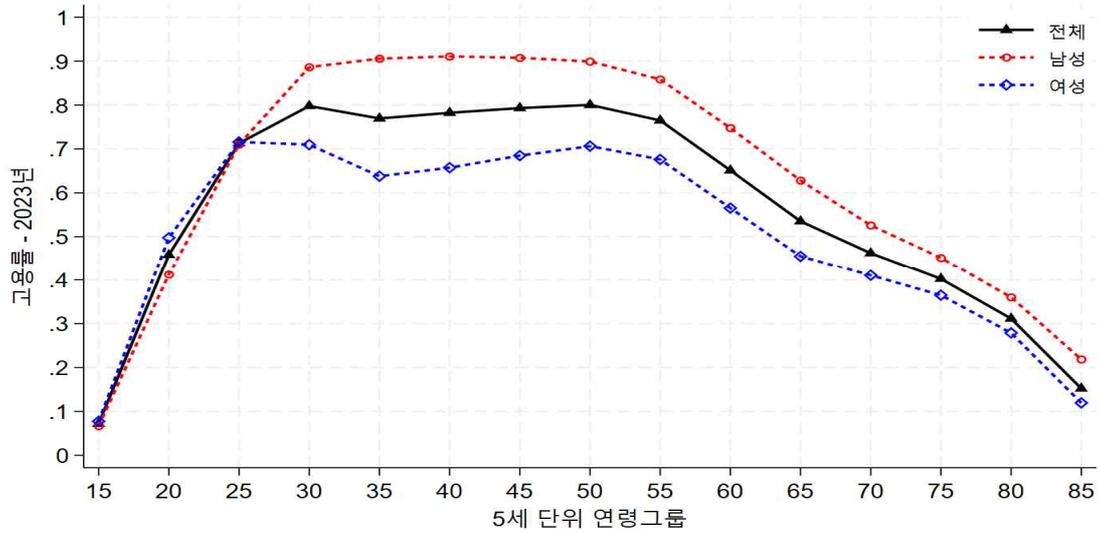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 - 여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2023년 연령별 고용률(=총인구 대비 취업자)은 역 U자 형태이고, 여성은 M자 형태에 가깝고, 여성 고용률은 25세까지는 남성과 차이가 거의 없지만 30세 이후에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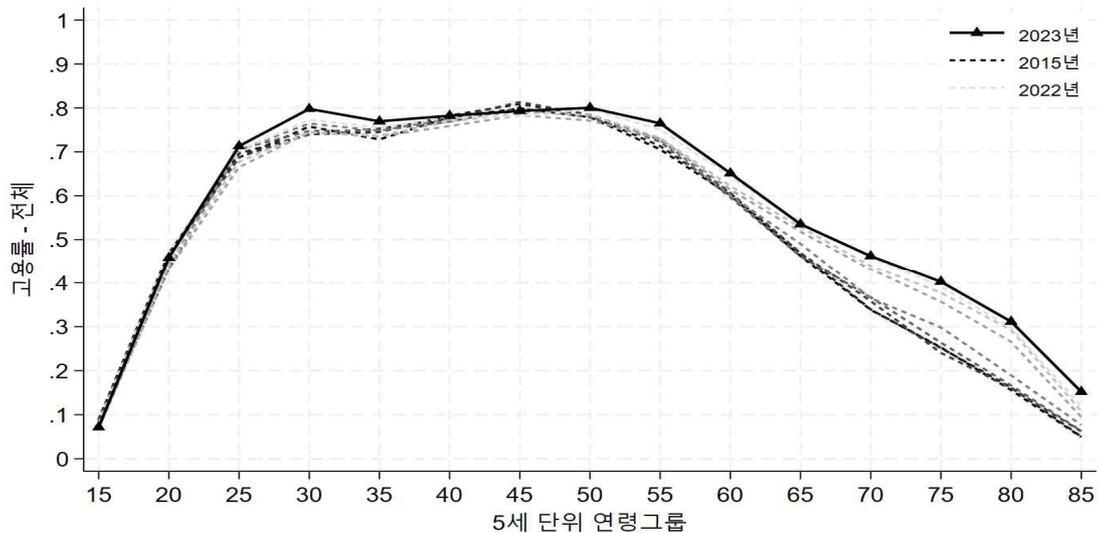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고용률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고용률은 역 U자이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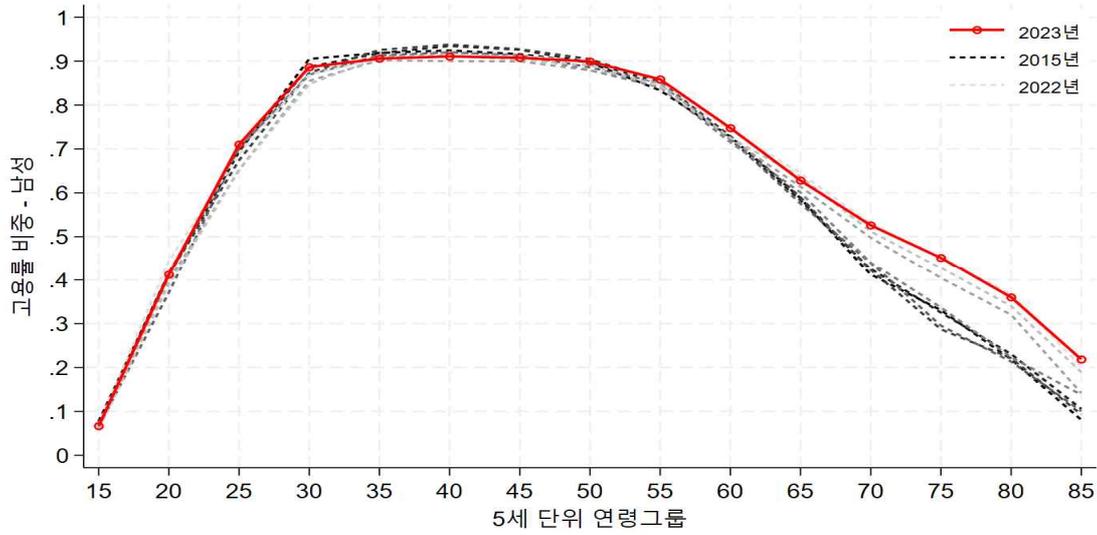
[그림 7] 연령별 고용률 - 전체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30세에서 50세까지 90%를 상회하는 역 U자 형태이고, 고용률 프로파일은 전체 고용률 프로파일에 비해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음
 -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 남성 고용률이 2020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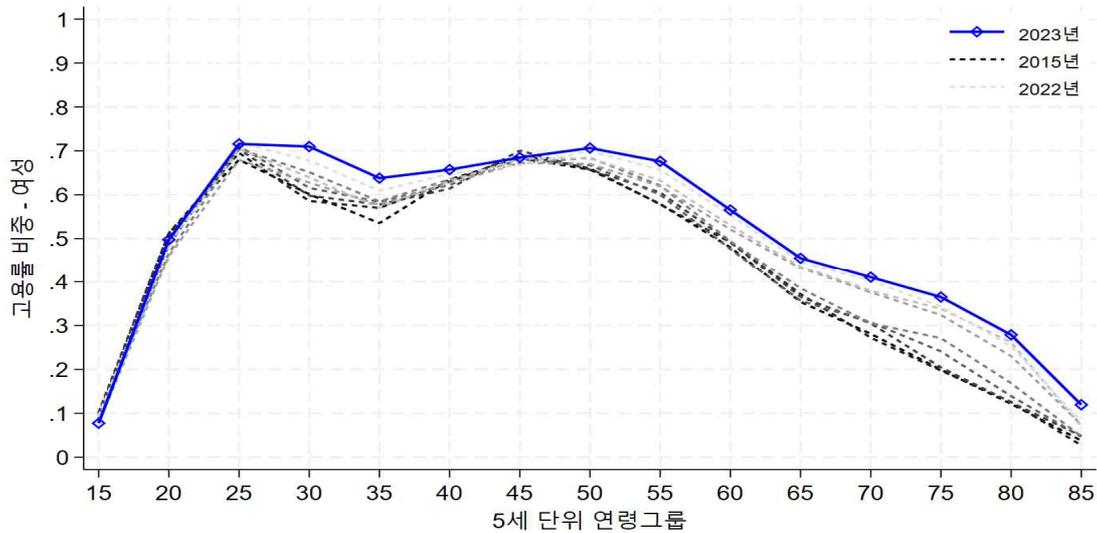
[그림 8] 연령별 고용률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35세에서 큰 폭으로 낮아지는 M자 형태였지만 35세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M자가 역 U자로 접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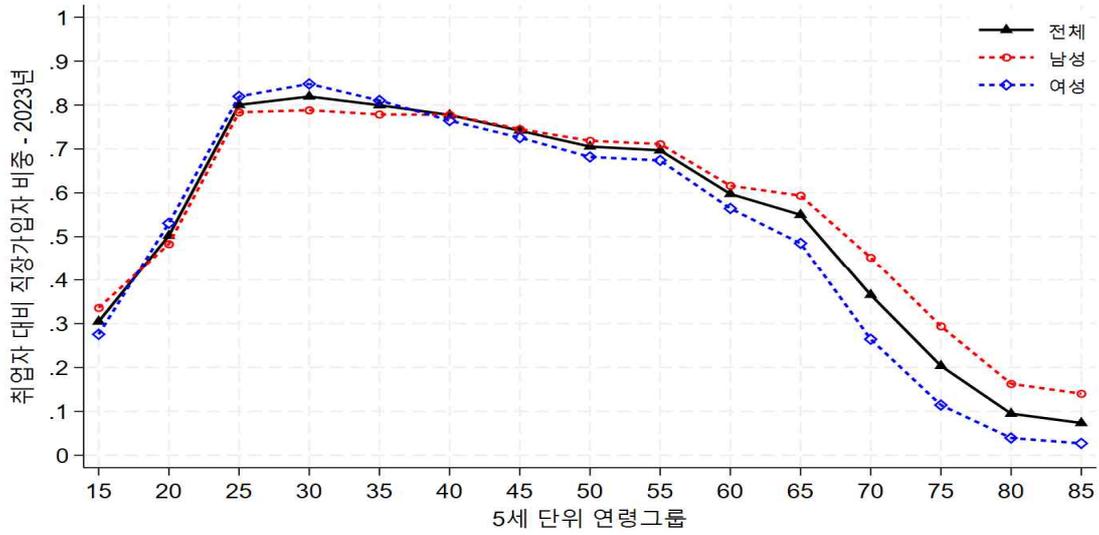
[그림 9] 연령별 고용률 - 여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2023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은 역 U자 형태이고,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이나 연령별 고용률에 비해 남성과 여성 간의 편차가 적음
 -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편차는 60세 이상에서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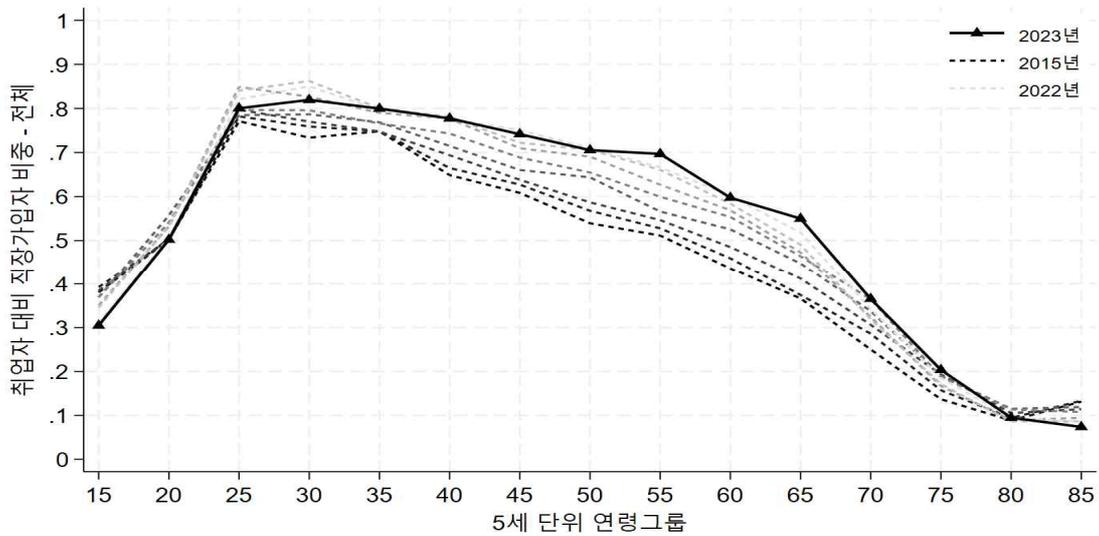
[그림 10]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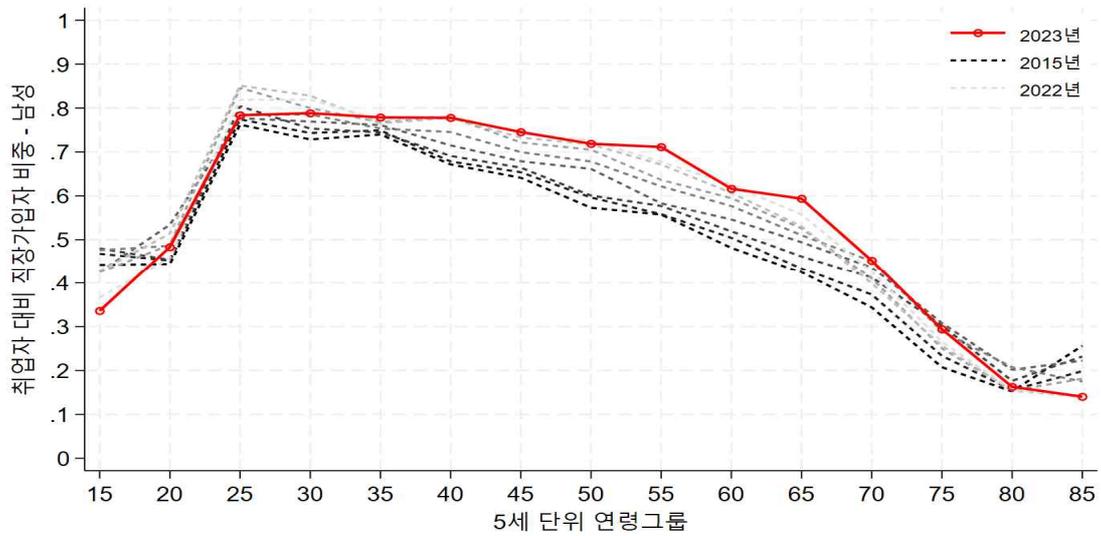
[그림 11]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전체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는 역 U자 형태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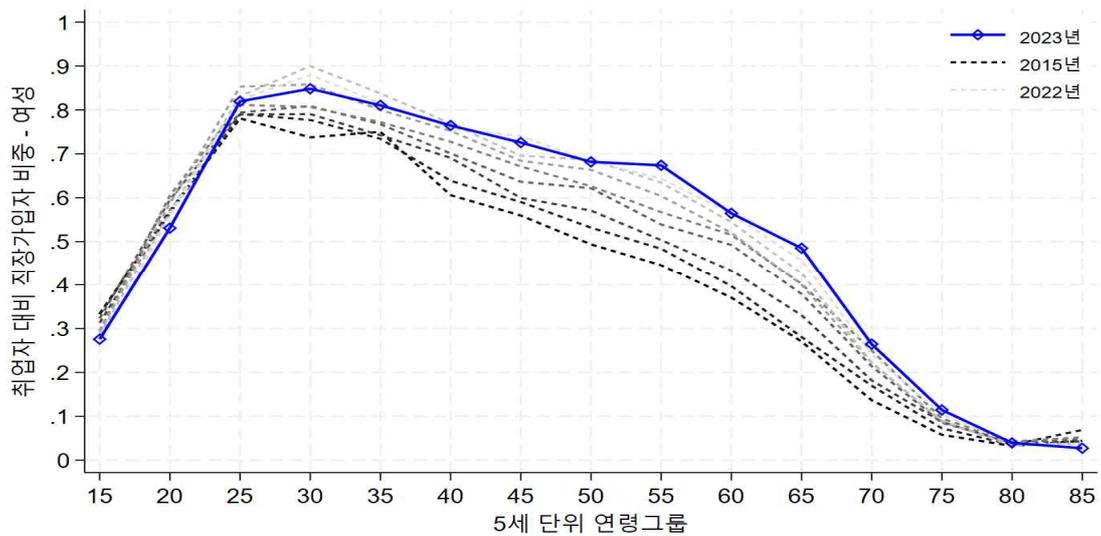
[그림 12]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는 M자 형태인 고용률과는 달리 역 U자 형태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데, 남성보다 증가 속도가 빠름

[그림 13] 연령별 취업자 대비 직장가입자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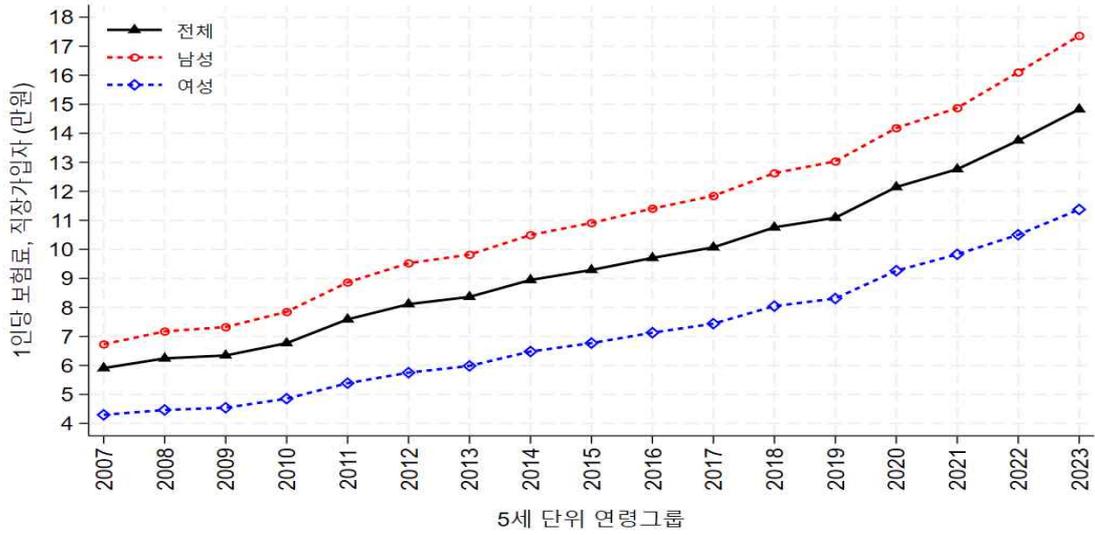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나. 보험료 현황

- 1인당 월보험료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2019년부터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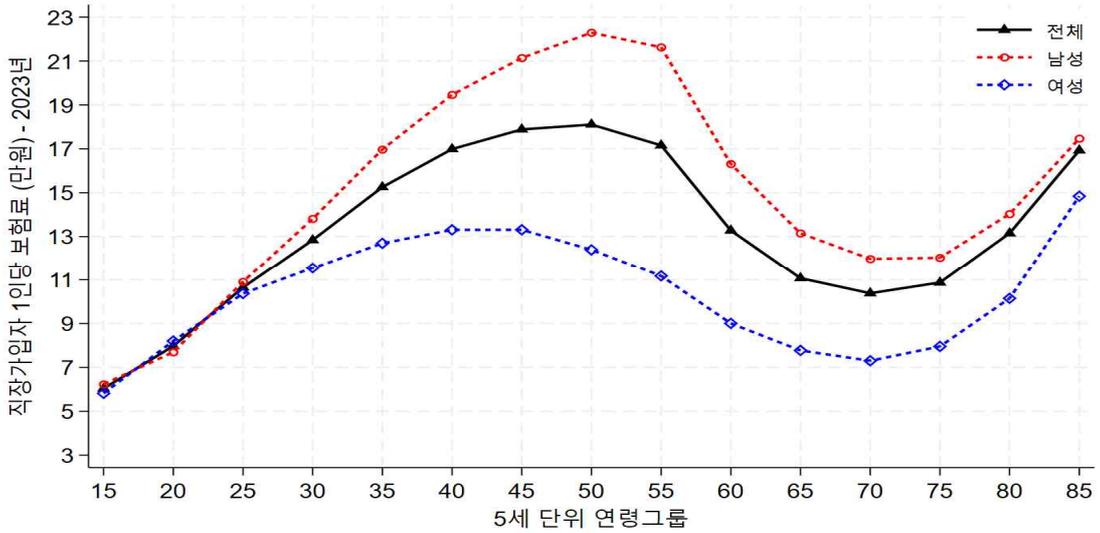
[그림 14] 직장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시계열 : 2007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1인당 월보험료는 70세까지는 역 U자 형태이지만 70세 이후 1인당 월보험료가 증가하면서 누운 S자 형태이고, 남성의 수준과 곡률은 여성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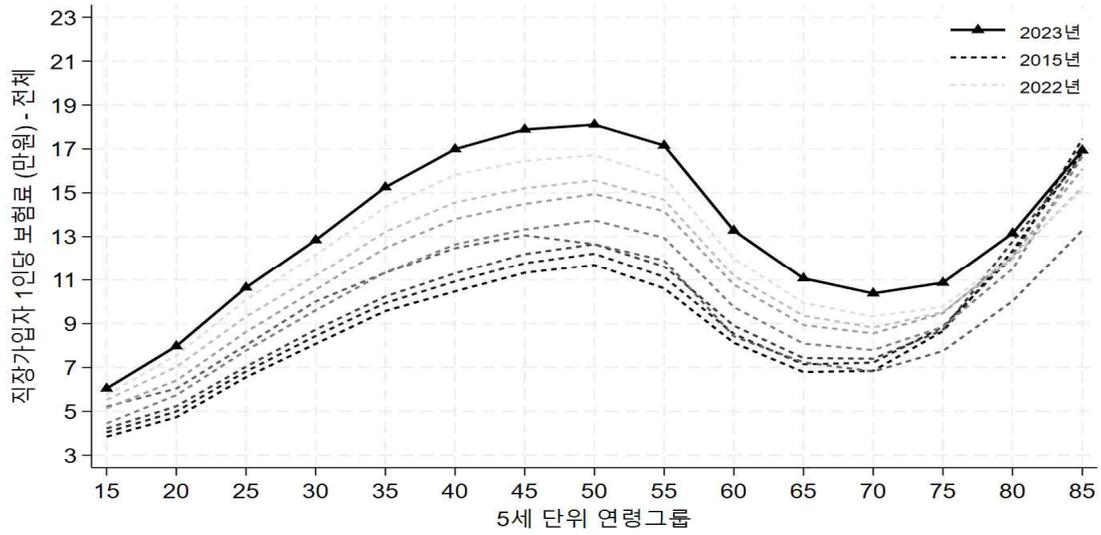
[그림 15]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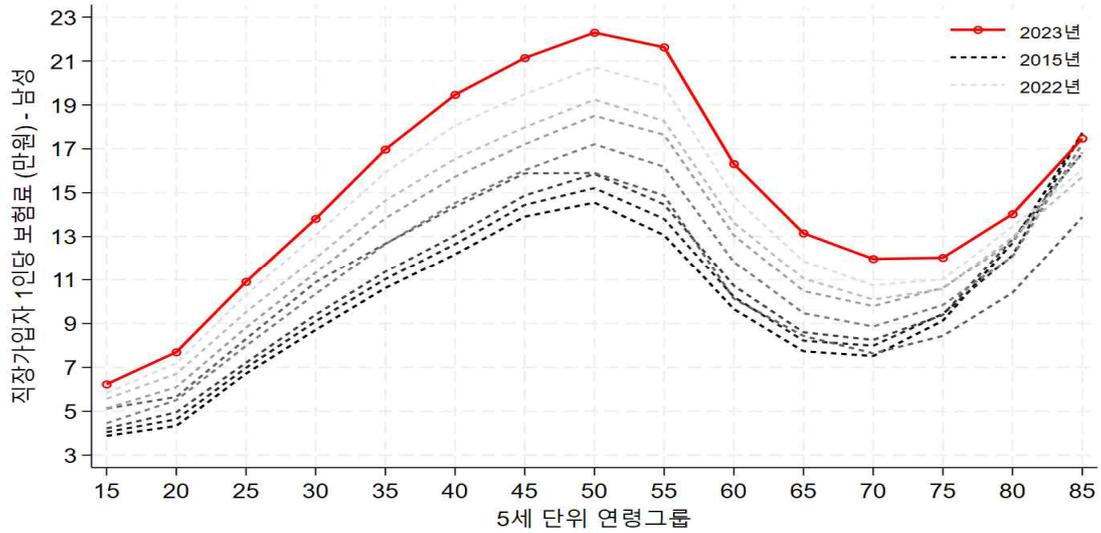
[그림 16]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전체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1인당 월보험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누운 S자 형태를 유지하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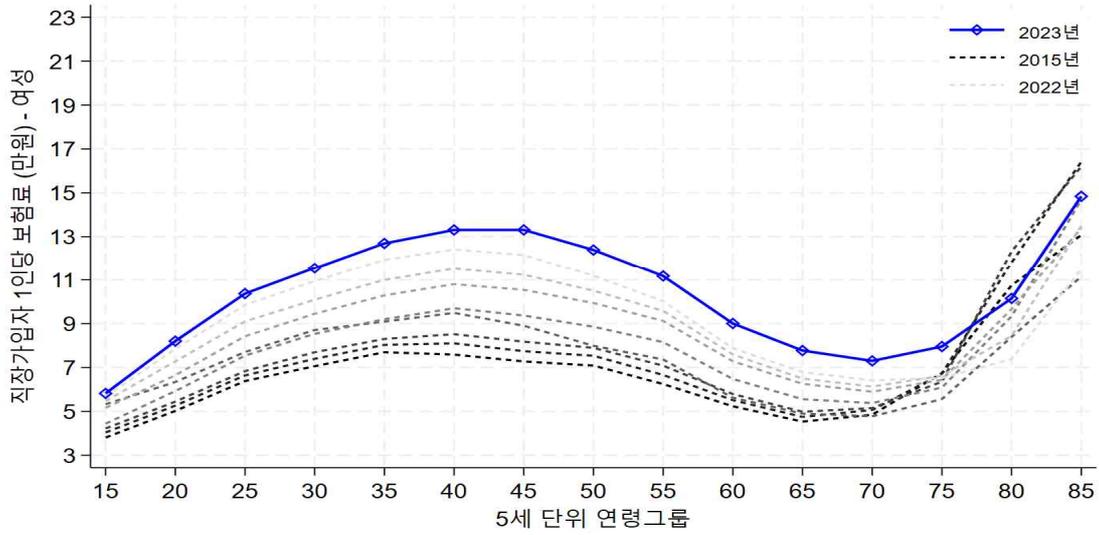
[그림 17]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자의 1인당 월보험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누운 S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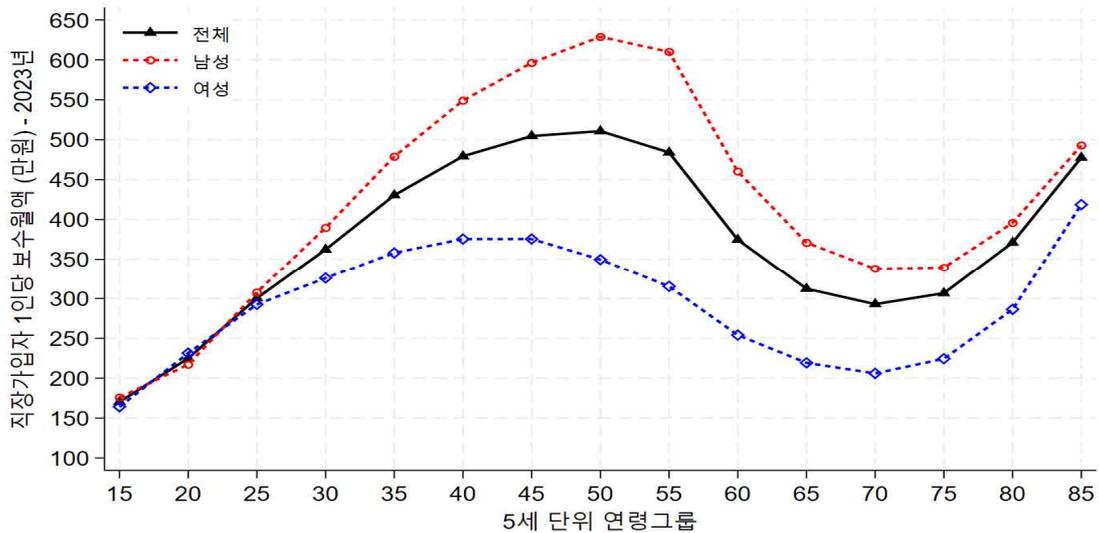
[그림 18]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 - 여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은 1인당 월보험료와 누운 S자 형태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1인당 보수월액은 1인당 월보험료를 보험료율로 나눠서 계산하고 보험료율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보수월액과 월보험료의 형태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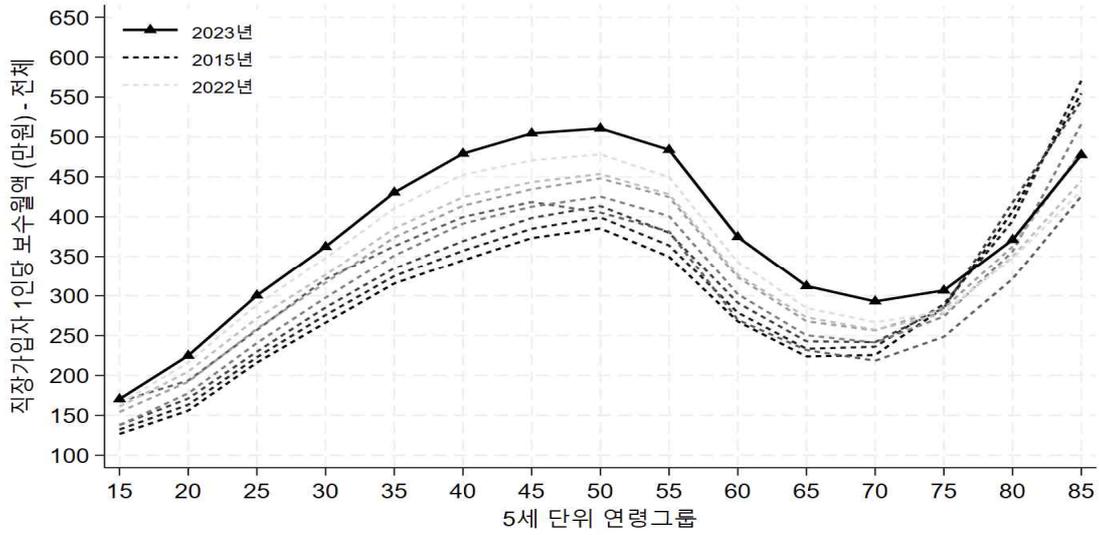
[그림 19]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데,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이기 때문에 1인당 명목 GDP 증가와 연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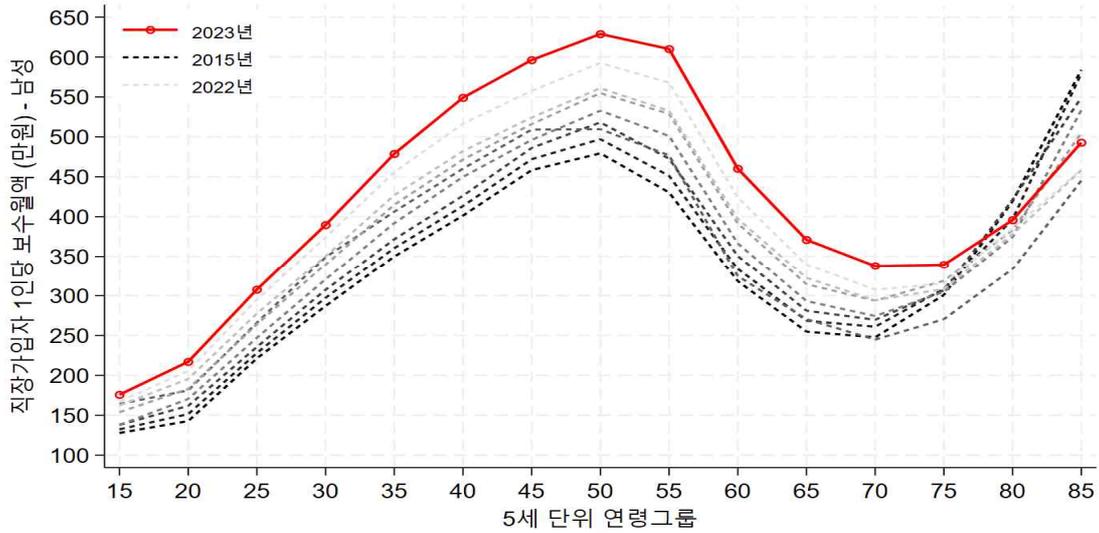
[그림 20]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전체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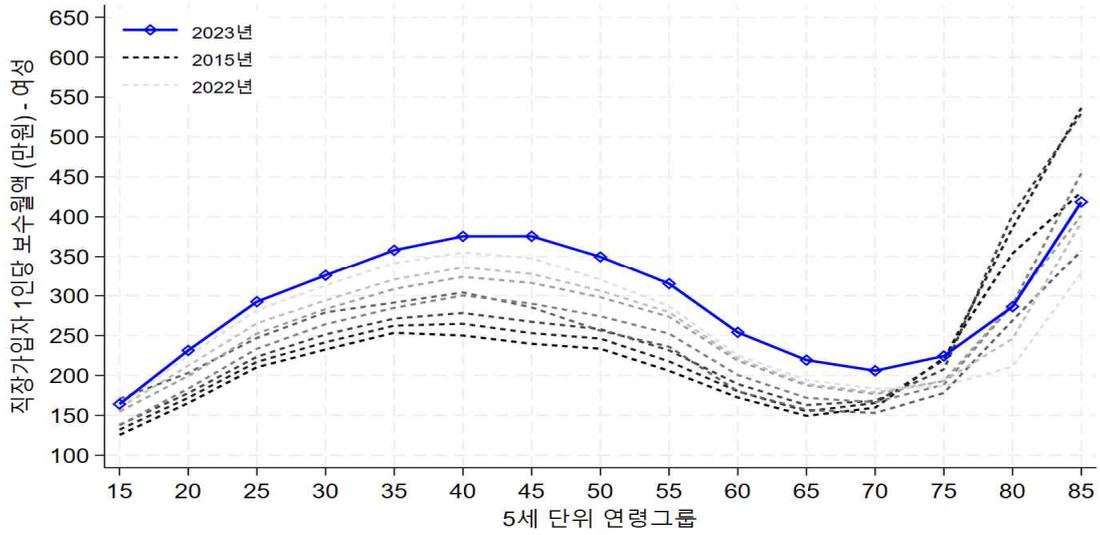
[그림 21]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성의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함

[그림 22] 직장가입자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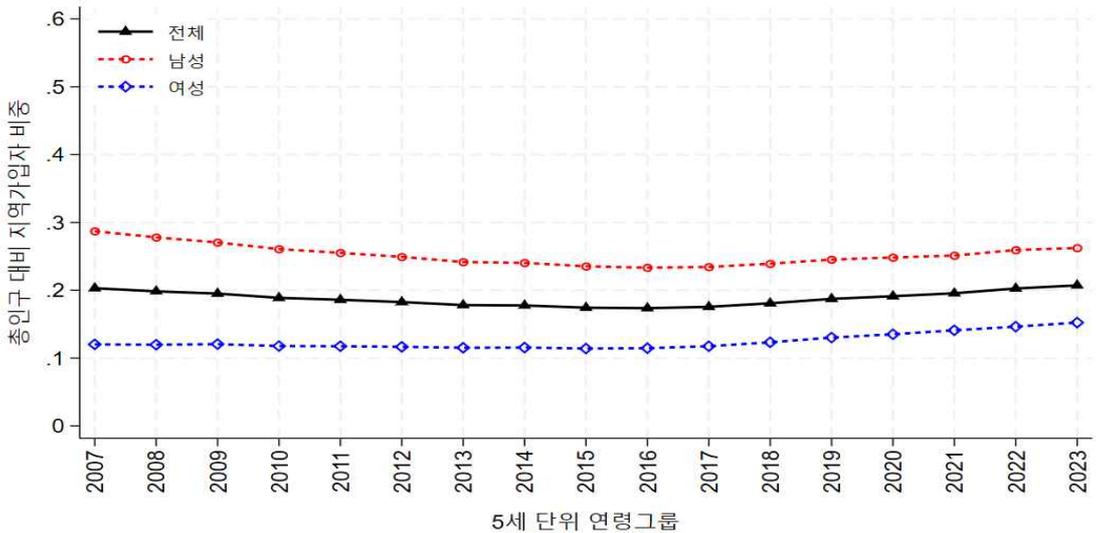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2. 지역가입자 관련 현황

가. 보험료 납입자 현황

-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은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 비중과는 달리 소폭 감소함

[그림 23]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시계열 : 2007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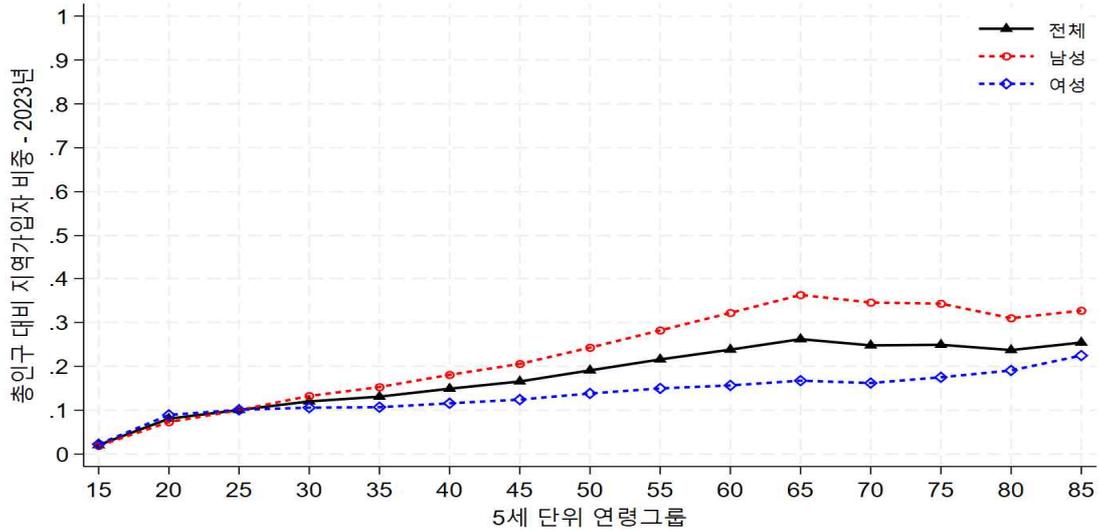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는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폭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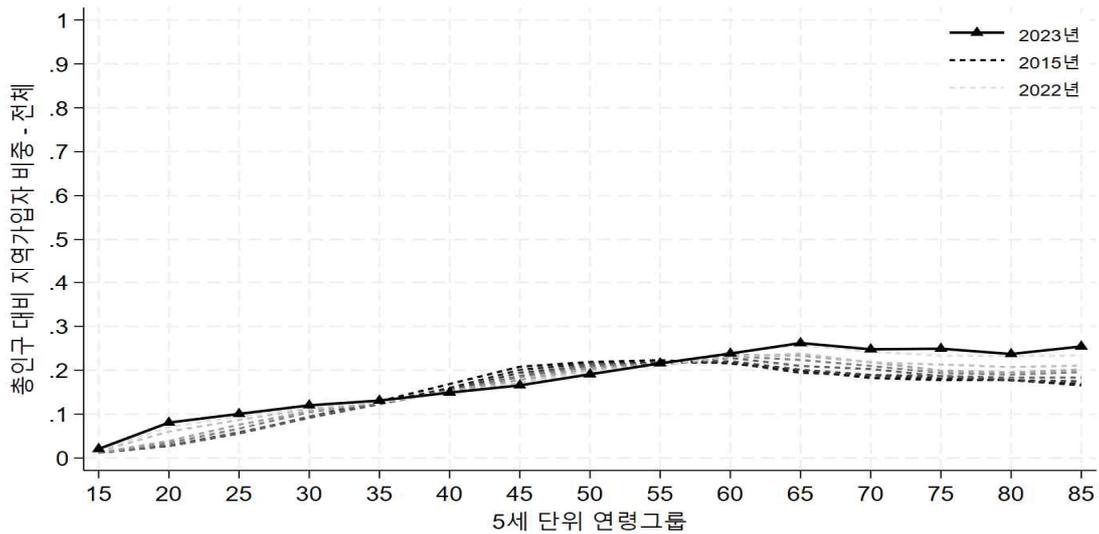
[그림 24]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 없이 프로파일이 60세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함

[그림 25]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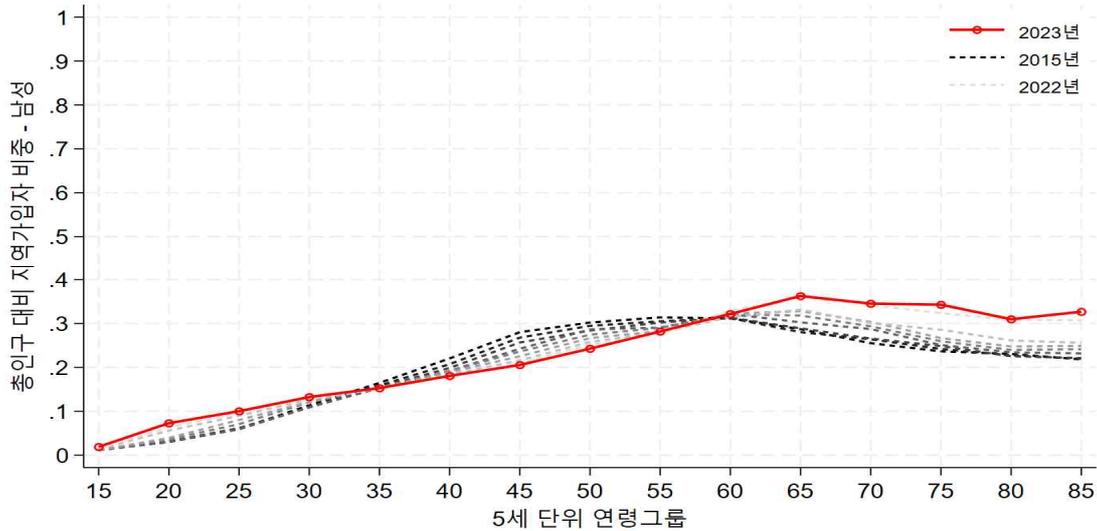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은 2015년 역U자 형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 U자 형태의 최고점이 고령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 2023년은 65세 이상에서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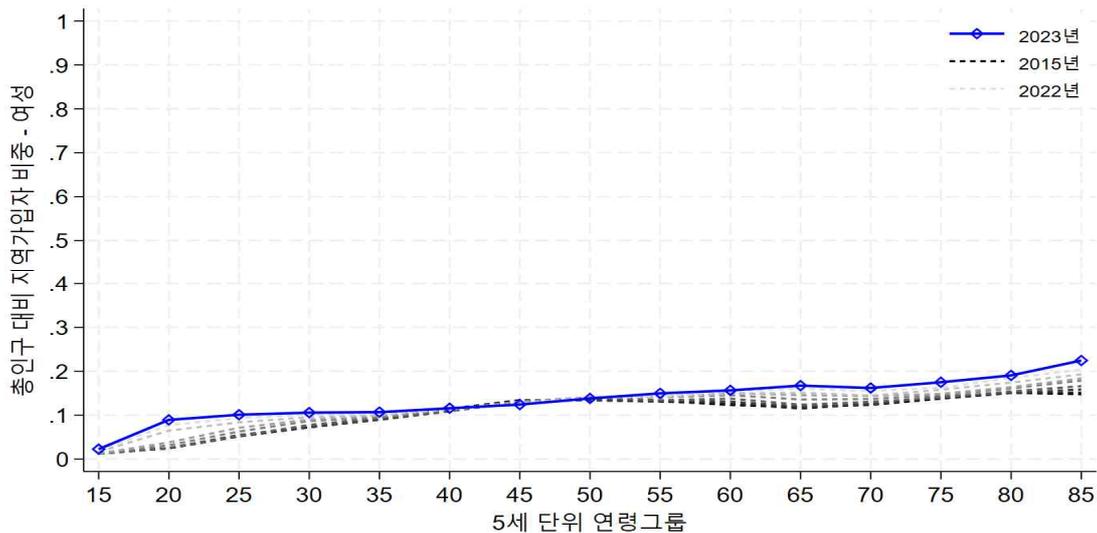
[그림 26]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성의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은 남성과 비교하면 변화 정도가 적고, 50세를 기준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7]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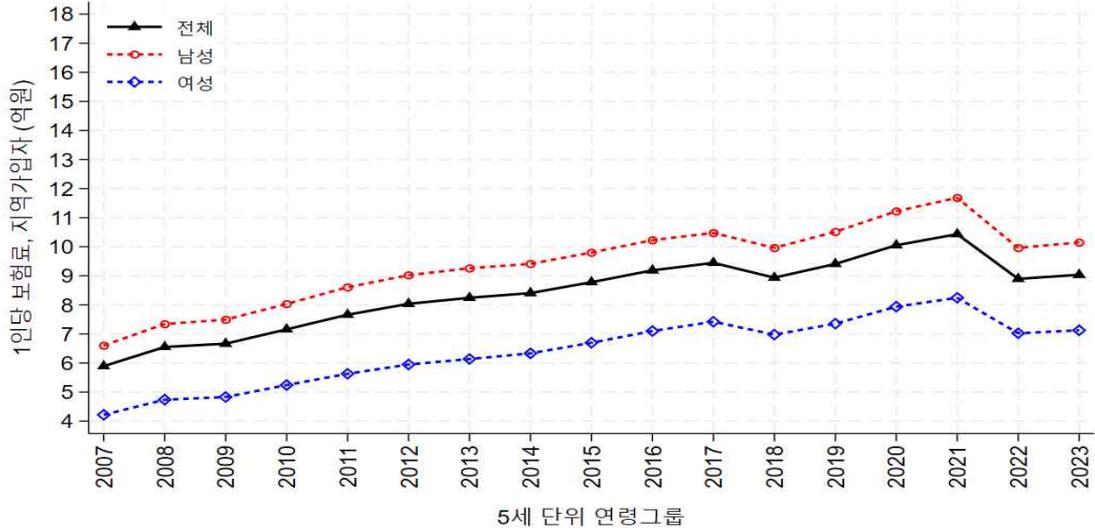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나. 보험료 현황

- 지역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8년과 2022년 부과체계 개편으

로 인해 1인당 월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함

[그림 28] 지역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시계열 : 2007 -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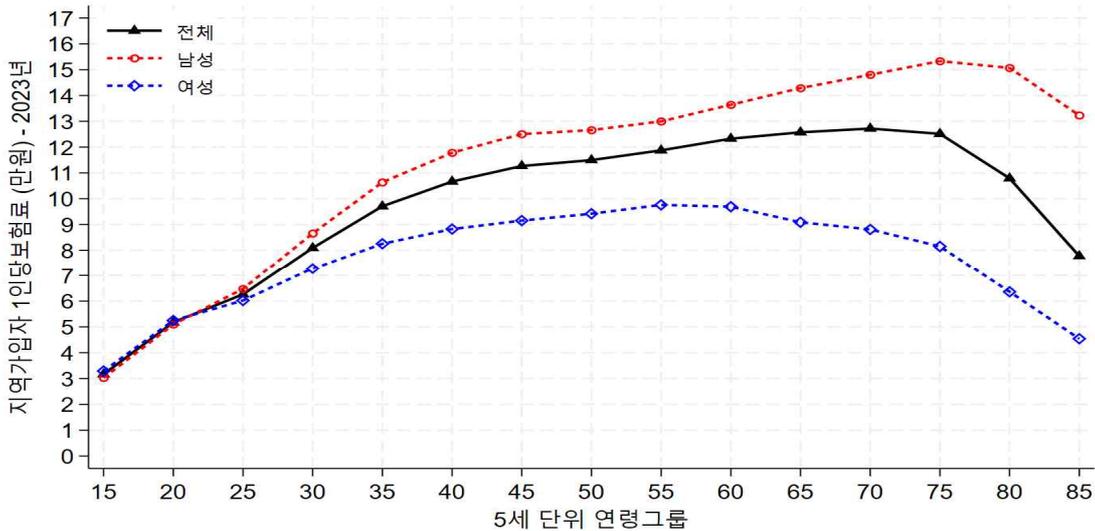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지역가입자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는 역 U자 형태이지만 정점이 고령층에서 나타남

○ 1인당 월보험료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남성은 75세, 여성은 55세에서 정점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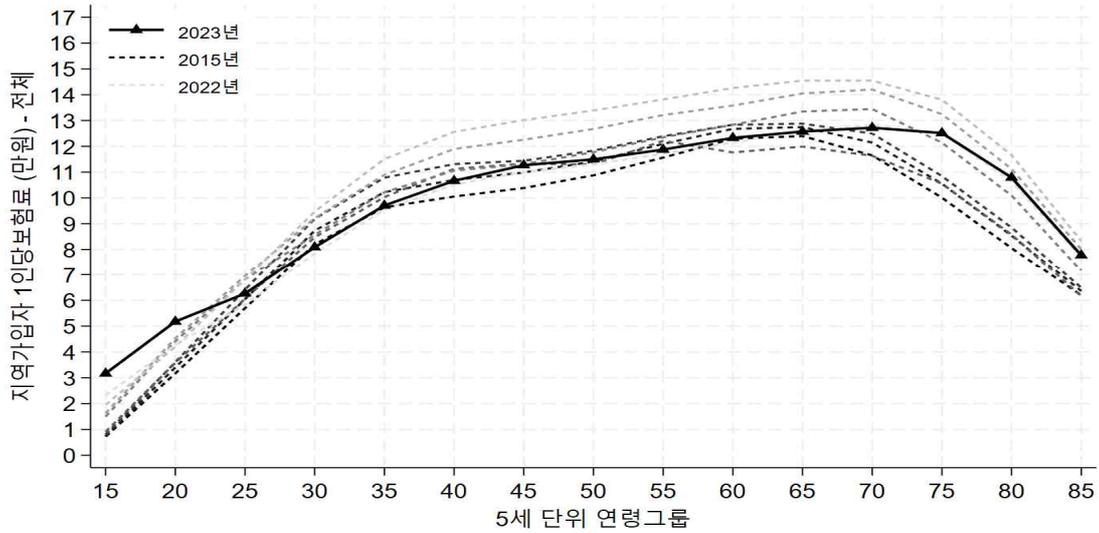
[그림 29] 지역가입자 1인당 보험료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상당히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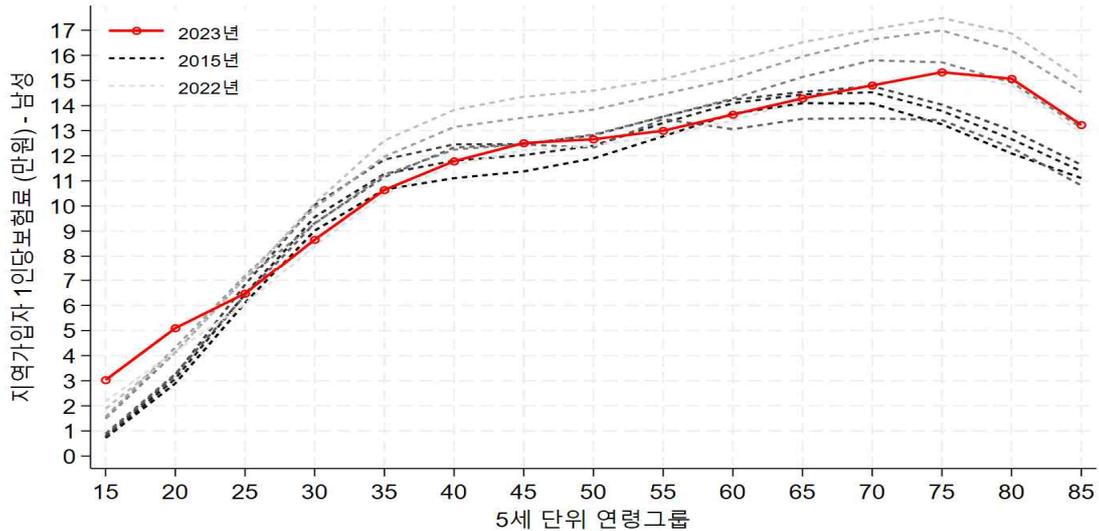
[그림 30] 지역가입자 1인당 보험료 - 전체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1인당 월보험료 프로파일의 형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프로파일 형태는 유지되지만 프로파일 수준이 2015년 수준으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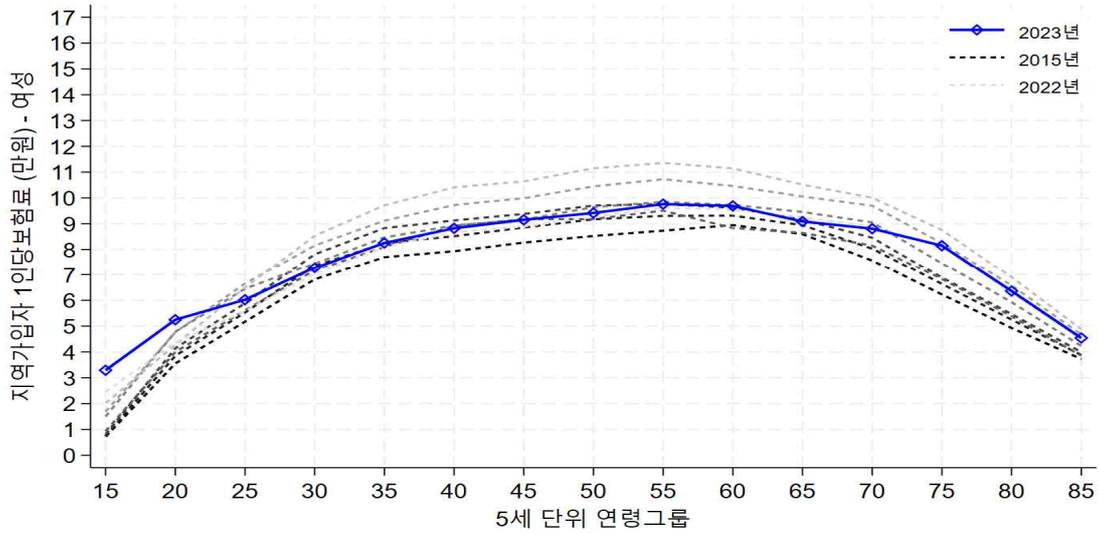
[그림 31] 지역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성의 1인당 월보험료 프로파일의 형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역 U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형태는 유지한 상태에서 수준이 낮아짐

[그림 32] 지역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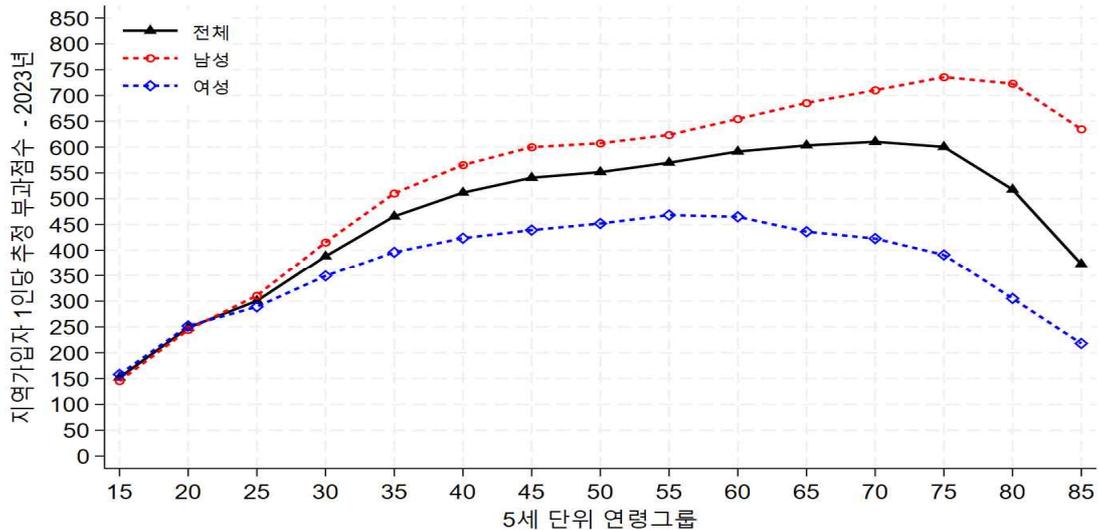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 프로파일도 역 U자 형태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는 1인당 월보험료를 점수당 부과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연령별 프로파일 형태는 연령별 1인당 월보험료와 유사한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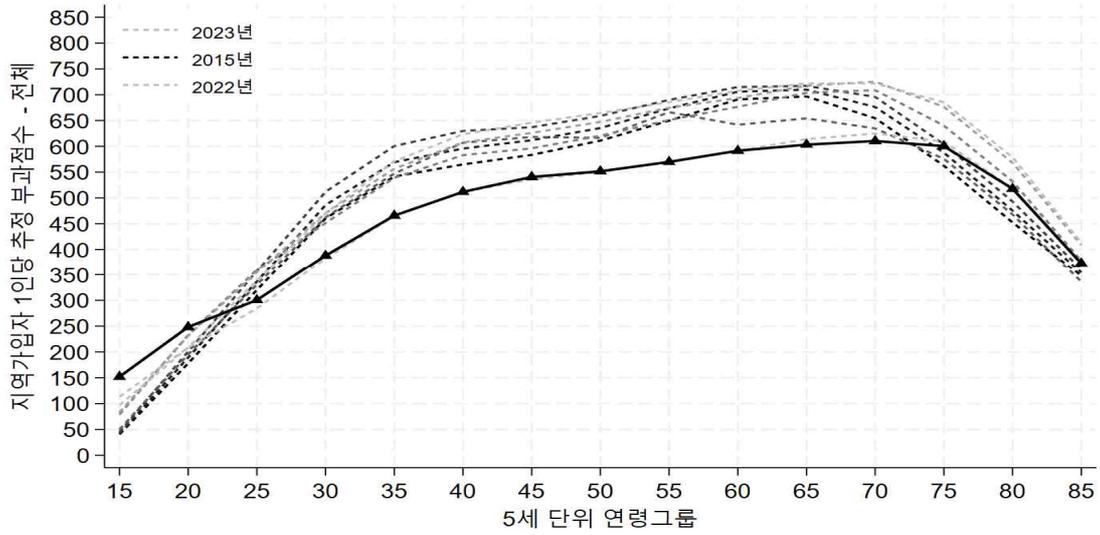
[그림 33]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2023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 프로파일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부과체계 개편으로 2023년에는 대폭 수준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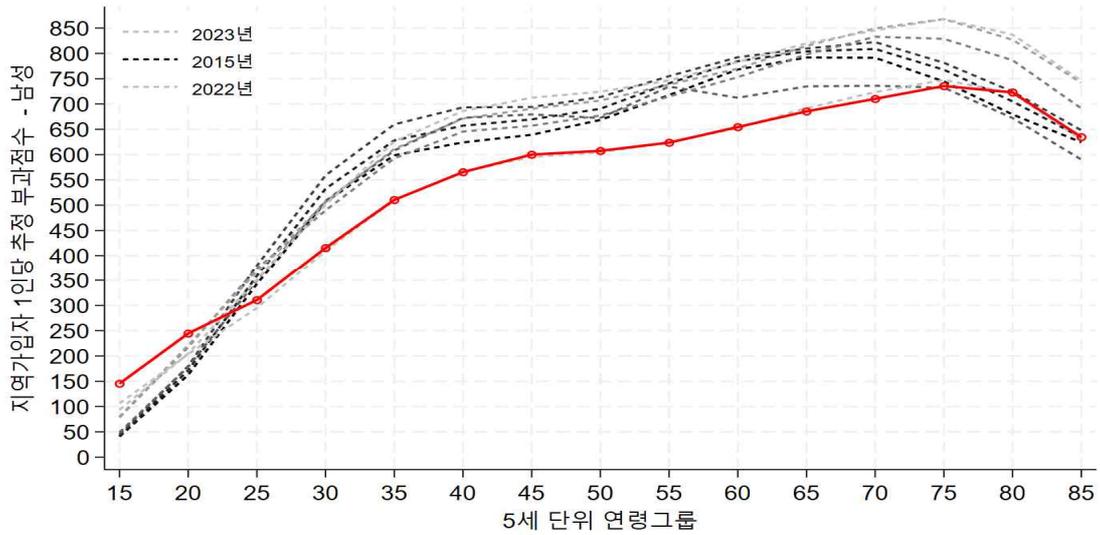
[그림 34]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전체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남성의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는 역 U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3년에 큰 폭으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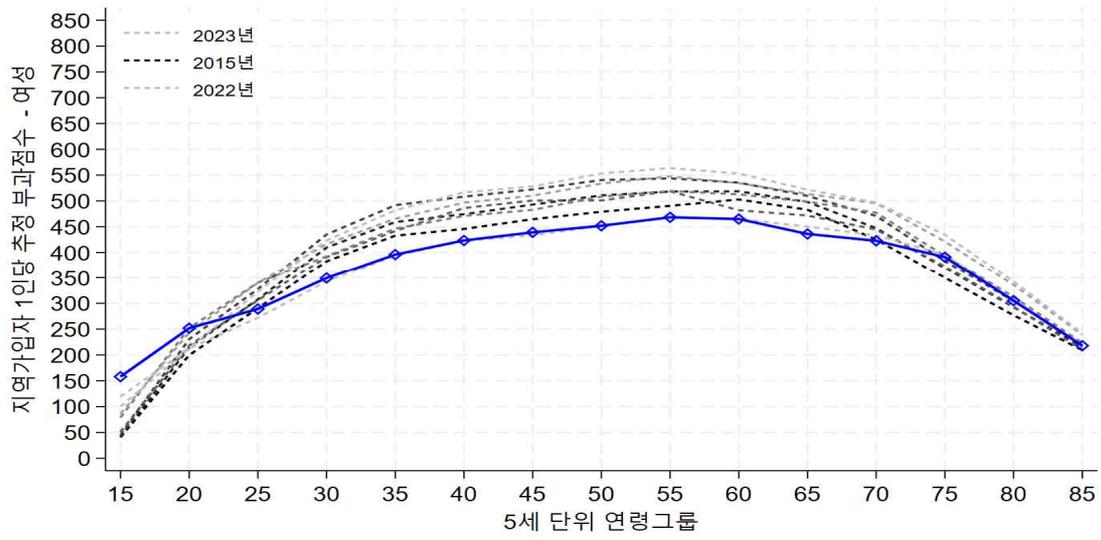
[그림 35]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남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성의 연령별 1인당 부과점수는 역 U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3년에 큰 폭으로 낮아짐

[그림 36] 지역가입자 1인당 부과점수 - 여성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IV. 건강보험 수입 추계 결과

- 건강보험료 수입과 보험료 추계를 위해 1인당 명목 GDP 성장률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이 전망 전제로 필요함
 - 전망 전제로 사용되는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은 김경희, 우경숙 (2024)의 전제를 사용하고 보험료율이 8%를 상회하면 8%로 적용함
 - 1인당 명목 GDP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한 명목 GDP 성장률 전제도 김경희, 우경숙 (2024)의 전제를 사용해 명목 GDP를 계산한 뒤, 이를 통계청 총인구 전망으로 나눠 1인당 명목 GDP를 계산해서 1인당 명목 GDP 성장률을 계산함

- 다음 표는 보험료 추계에 사용한 전망 전제를 정리한 것임

[표 1] 건강보험 수입 추계를 위한 전망 전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명목성장률(%)	3.5	4.3	4.3	4.5	4.3	4.0	3.9	3.7	3.7	3.7
보험료율(%)	7.09	7.09	7.24	7.39	7.54	7.70	7.86	8.00	8.00	8.00
부과점수당금액		208.4	212.8	217.2	221.7	226.4	231.1	235.9	235.9	235.9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명목성장률(%)	3.6	3.5	3.4	3.3	3.3	3.2	3.2	3.1	3.0	3.0
보험료율(%)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부과점수당금액	235.9	235.9	235.9	235.9	235.9	235.9	235.9	235.9	235.9	235.9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30년부터 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후에는 8%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도 보험료율이 8%를 상회하지 않는 2030년부터 235.9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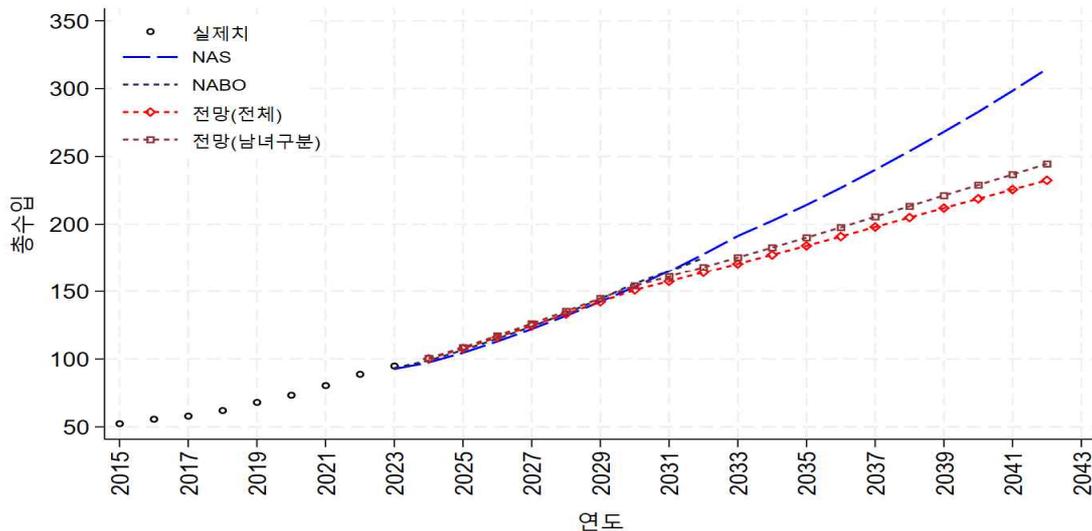
- 국고지원금과 기타수입 전망에 필요한 전제는 임슬기(2023)와 김경희, 우경숙 (2024)에서 적용한 방법과 같이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을 전제로 사용함
 - 국고지원금과 일반회계는 기금(담배부담금)으로 구분해 총보험료에 대한 비중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기타수입은 총보험료에 대한 비중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건강보험 수입 전망은 2024년부터 2042년까지 실시하고, 본 보고서의 전망 결과를 김윤희, 우경숙 (2024) 보고서의 전망 결과들과 비교함
 - 이 보고서는 2022년까지 자료를 이용해 2023년부터 전망하지만, 본 연구는 2023년까지 자료를 이용해 2024년부터 전망하는 차이가 있음

1. 건강보험 수입 및 보험료 추계 결과

- 건강보험 수입은 ('24년) 100.1조 원, ('30년) 150.9조 원, ('35년) 184.2조 원, ('40년) 218.8조 원, ('42년) 232.4조 원으로 전망됨

[그림 37] 건강보험 총수입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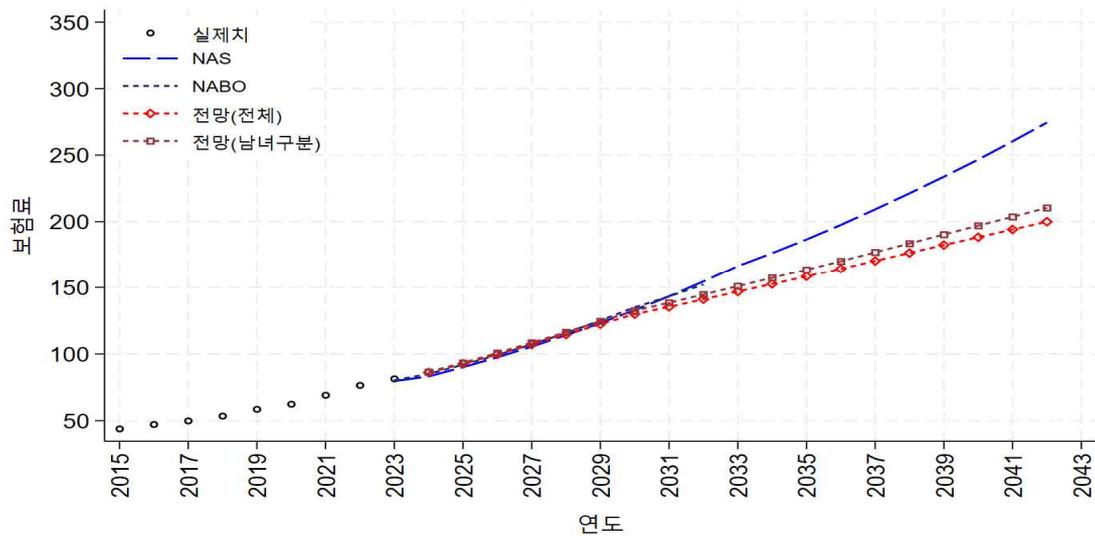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건강보험 수입을 남녀로 구분해서 추계하면 전망 결과가 다소 높게 전망됨
 - (남녀구분 전망치) ('24년) 100.6조 원, ('30년) 154.0조 원, ('35년) 190.1조 원, ('40년) 228.9조 원, ('42년) 244.5조 원
- 김윤희, 우경숙 (2024)의 전망 결과와 비교하면 2030년 이후 건강보험 수입 전망 결과 차이가 벌어짐
 - (김윤희, 우경숙 (2024)) ('24년) 97.4조 원, ('30년) 153.2조 원, ('35년) 214.2조 원, ('40년) 282.8조 원, ('42년) 314.5조 원
- 김윤희, 우경숙 (2024)의 전망 결과와의 차이는 보험료 전망 결과에서 발생함

□ 총보험료는 ('24년) 86.1조 원, ('30년) 129.9조 원, ('35년) 158.4조 원, ('40년) 188.2조 원, ('42년) 199.9조 원으로 전망됨

[그림 38] 건강보험 보험료 전망 비교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보험료 수입을 남녀로 구분해서 전망하면 다소 높게 전망됨
 - (남녀구분 전망치) ('24년) 86.5조 원, ('30년) 132.5조 원, ('35년) 163.6조 원, ('40년) 196.9조 원, ('42년) 210.4조 원
- 김윤희, 우경숙 (2024)의 전망 결과와의 차이는 (1) 보험료를 상한 8% 적용 여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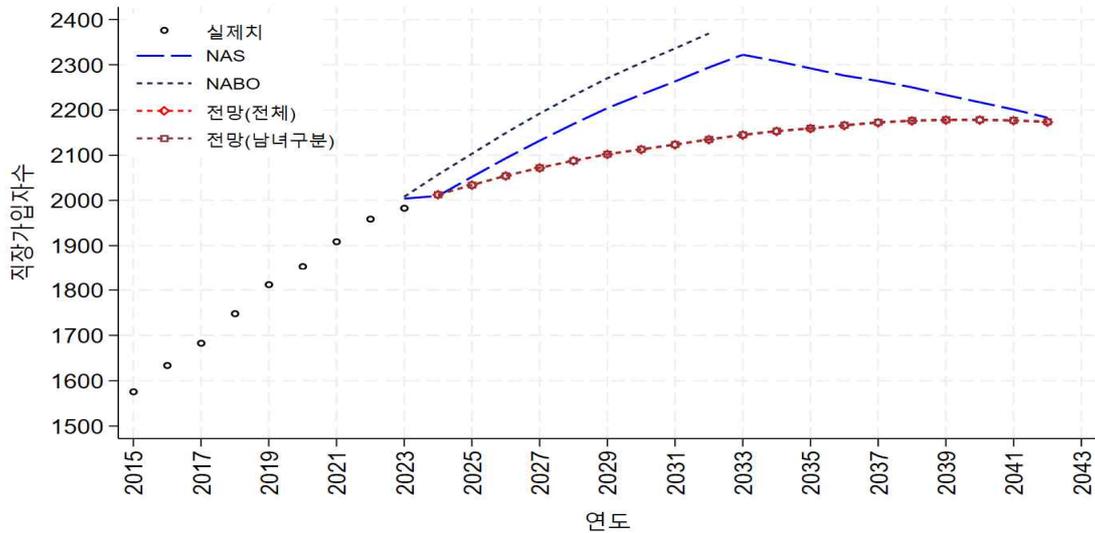
(2) 가입자 수 전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직장가입자의 1인당 보수월액이나, 지역가입자의 1인당 부과점수를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2. 납입자 추계 결과

- 직장가입자수 전망은 ('24년) 2,012.6만 명, ('30년) 2112.4만 명, ('35년) 2158.8만 명, ('40년) 2177.5만 명, ('42년) 2173.2만 명으로 전망됨

[그림 39] 직장가입자 납입자 전망 비교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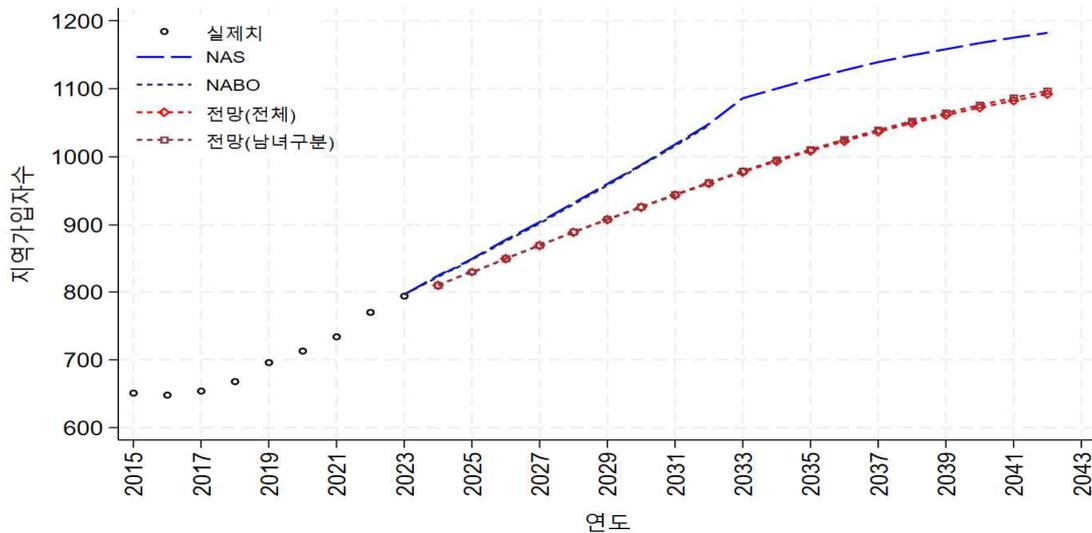
- 직장가입자 수 전망은 남녀로 구분한 전망과 차이가 작음
 - 남녀로 구분해서 발생하는 보험료 차이는 1인당 보수월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김윤희, 우경숙 (2024)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연령별 프로파일의 차이보다는 프로파일 상승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함
 - 김윤희, 우경숙 (2024)는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입자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추세를 본 연구보다 더 가파르게 적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차이로 판단됨
 - 김윤희, 우경숙 (2024)에서 적용한 시간 추세는 2032년까지 증가 폭을 줄이면서 적용하다가 2033년부터 시간 추세가 없는 방식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2033년부

더 고령화된 인구 분포로 인해 직장가입자 수가 감소함

- 본 연구는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을 구분해서 전망하고, 시간 추세는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에만 적용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윤희, 우경숙 (2024)의 직장가입자 수 전망보다 낮게 전망됨

□ 지역가입자 수 전망은 ('24년) 809.5만 명, ('30년) 925.6만 명, ('35년) 1008.6만 명, ('40년) 1072.2만 명, ('42년) 1092.1만 명으로 전망됨

[그림 40] 지역가입자 납입자 전망 비교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지역가입자 수는 2042년 1092.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자영업자 비중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지역가입자 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임
 - 연령별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수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 추세에 의해서만 증가하는 방식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수 전망은 남녀로 구분한 전망과 차이가 작으나 직장가입자보다는 다소 있음
- 김윤희, 우경숙 (2024)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직장가입자 전망과 유사

한 이유로 발생함

- 직장가입자 전망과 유사하게 총인구 대비 지역가입자 비중에 시간 추세를 더 가파르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V. 시나리오 분석

- 기존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은 대부분 건강보험 제도 변화가 건강보험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국한됨
 - 임슬기(2023)는 건강보험 제도 주요 정책 변화가 건강보험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보험료를 조정 시나리오 : 8% 상한 폐지
 - 국고 지원을 조정 시나리오 : (1) 법정지원을 (20%) 준수 시나리오, (2) 일반회계 (14%)와 기금 (6%)에 대한 개별 법정지원을 유지 시나리오
 - 김윤희, 우경숙(2024)은 인구추계, 가입자 비중, 보수월액, 부과점수 시나리오 고려
 - 인구추계 시나리오 : 통계청 인구추계 저위, 고위 추계 적용
 - 연령별 추계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 시나리오 : 가입유형별 비중 증가추세 둔화
 -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보수월액 시나리오 : 1인당 평균 보수월액 증가율 변화
 - 지역가입자 세대당 부과점수 시나리오 : 세대당 부과점수 증가율 변화
 - 보험료를 인상률 시나리오 : 보험료를 증가 속도 변화
 - 국고 지원을 조정 시나리오 : 국고 지원을 변화

- 기존 모형은 가입자 유형별 비중이나 보수월액, 부과점수 시나리오를 설정해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입 추계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
 -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 전망은 연령별 인구전망과 가입자 유형별 비중을 곱해서 추계하므로 인구추계 시나리오 분석은 가능함
 - 가입유형별 총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을 변화시키는 시나리오는 가입자 비중이 얼마나 어떤 추세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부족함
 - 김윤희, 우경숙(2024)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을 증가시키는 시나리오에서 해당 비중이 10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상한으로 적용함

- 1인당 평균 보수월액이나 세대당 보험료 부과점수 증가추세를 변화시키는 시나리오는 증가추세가 왜 변하게 되고,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부족함
-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그 자체를 전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재정전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함
 -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장래인구추계와 장래 경제전망이 이루어짐
 - 여기 전망되는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의 결과와의 연결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모형은 보험료율이나 국고 지원을 변화 등과 같은 건강보험 정책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용이하지만, 고용률, 경제성장률 변화 등과 같은 거시경제 전망 변화가 건강보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새로 구축된 모형은 (1) 총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 추계 방법을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으로 세분화하고, (2) 1인당 보수월액과 세대당 부과점수 전망에서 (명목) GDP 성장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장기재정전망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음

-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는 (1) 고용률 변화와 (2) 취업자 중 가입자 비중 변화로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음
 - 고용률 변화가 가입자 수와 수입 전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능
 - 취업자 중 가입자 비중 변화는 건강보험 정책변수로 별도 분석이 가능
- 1인당 보수월액과 세대당 부과점수 전망에서 1인당 명목 GDP를 고려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이 반영되므로 성장률 변화가 건강보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경제성장률과 GDP deflator 변화율을 통해 명목 GDP 성장률을 전망하고, 총인구와 결합해 1인당 명목 GDP 전망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은 (1) 인구전망, (2) 고용률 전망, (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 수입 추

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이 구축됨

- 새로 구축된 모형은 기존 모형에서 실시된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전망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 변화를 전망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장은 새로 구축된 모형을 활용해 고용률 변화가 건강보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모형의 활용 방법을 제공함

- 다음과 같이 고용률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함
 - (시나리오1) 55세 이상 고령 고용률 증가
 - (시나리오2) 여성 고용률 증가
-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기준시나리오와 비교함
 - 건강보험 수입,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수 전망 결과 비교

1. 시나리오1 - 고령 고용률 증가

□ 최근 55세 이상 인구에서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 연령별 고용률 변화 : 2015 - 2023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2015	46.5%	68.7%	75.8%	72.8%	77.9%	79.9%	77.9%
2023	45.8%	71.3%	79.8%	76.9%	78.2%	79.3%	80.0%
전체격차	-0.6%	2.6%	4.0%	4.1%	0.3%	-0.6%	2.1%
연간격차	-0.1%	0.3%	0.4%	0.5%	0.0%	-0.1%	0.2%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99세
2015	70.5%	60.1%	46.2%	33.8%	25.3%	15.6%	4.9%
2023	76.5%	65.1%	53.5%	46.2%	40.2%	31.1%	15.2%
전체격차	5.9%	5.0%	7.3%	12.4%	14.9%	15.5%	10.3%
연간격차	0.7%	0.6%	0.8%	1.4%	1.7%	1.7%	1.1%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5세 간격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50-54세까지는 5%p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나, 55-59세 이상에서는 5%p 이상으로 증가함
 -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고용률이 1.0%p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연간격차는 2015년부터 2023년간 고용률 변화를 9년으로 나눠 계산하고, 이를 고령 고용률 전망 시나리오 적용해서 고용률을 새롭게 전망함

□ 고령 고용률 증가 전망은 5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5세 연령 그룹별로 최근 고용률 증가율을 적용해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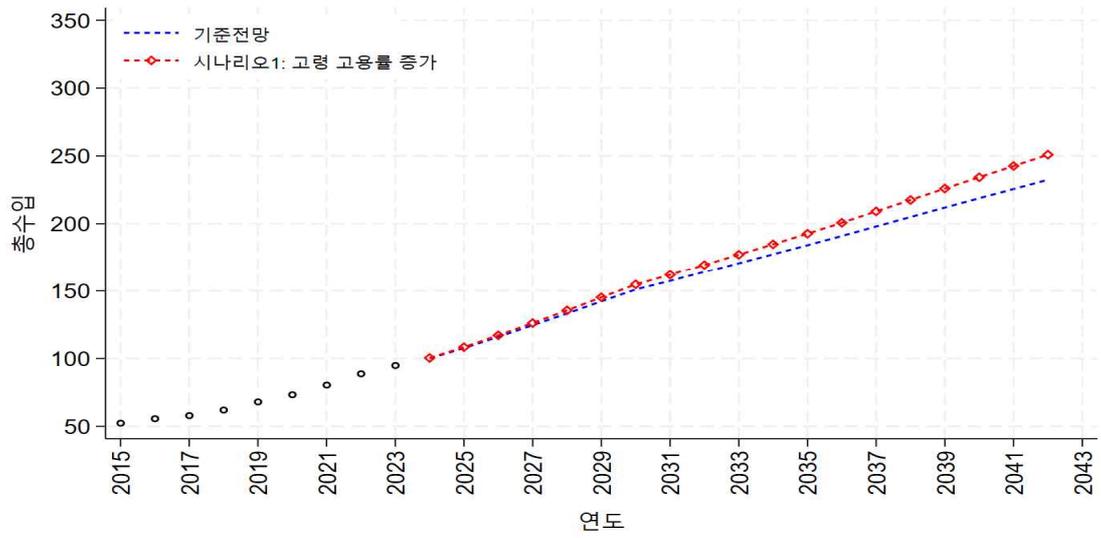
[표 3] 고령 고용률 증가 시나리오 - 2042년 기준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99세
기준시나리오	75.8%	64.3%	52.5%	42.3%	34.3%	25.0%	11.4%
시나리오1	90.0%	76.2%	69.7%	71.8%	69.7%	61.9%	35.8%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기준시나리오는 연령별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2042년까지 같은 연령별 고용률을 유지함
 - 고령 고용률 증가 시나리오인 시나리오1은 매년 해당 연령별 고용률 증가분이 고려되어 2042년 고용률로 전망됨
 - 고령 고용률 증가 전망 전체를 새로 구축된 건강보험 수입 전망 모형에서 연령별 고용률 프로파일에 고려해 건강보험 수입을 전망함
- 고령 고용률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2042년 기준시나리오 232.4조 원에서 시나리오1 250.9조 원으로 8.0% 증가함
- 시나리오1 고용률은 기준시나리오 대비 2042년 평균적으로 20%p 증가하지만, 건강보험 총수입은 8.0% 증가함
 - 고령 고용률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수입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수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총수입 증가는 고용률 증가에 비해 낮게 증가함

[그림 41] 시나리오1 - 총수입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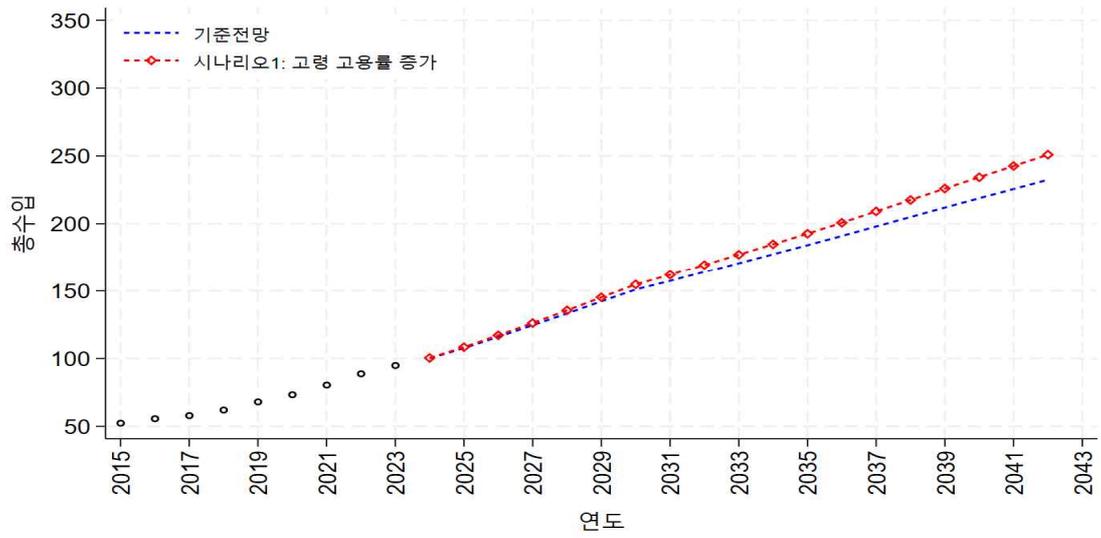
[표 4] 건강보험 총수입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1	증가율
2024	100.1	100.4	0.3%
2025	107.6	108.3	0.7%
2026	115.9	117.0	0.9%
2027	124.5	126.1	1.3%
2028	133.2	135.4	1.7%
2029	142.2	145.2	2.1%
2030	150.9	154.7	2.5%
2031	157.3	161.9	2.9%
2032	164.0	169.4	3.3%
2033	170.7	177.1	3.7%
2034	177.4	184.8	4.2%
2035	184.1	192.6	4.6%
2036	190.9	200.7	5.1%
2037	198.0	209.1	5.6%
2038	204.9	217.5	6.1%
2039	211.9	226.0	6.7%
2040	218.8	234.2	7.0%
2041	225.6	242.5	7.5%
2042	232.4	250.9	8.0%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보험료는 2042년 기준시나리오 200.0조원에서 시나리오1 215.9조 원으로 8.0% 증가함
 - 보험료 전망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망은 기준시나리오와 같음
 - 시나리오1의 보험료 전망이 기준시나리오보다 높아지는 것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42] 시나리오1 - 보험료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5] 건강보험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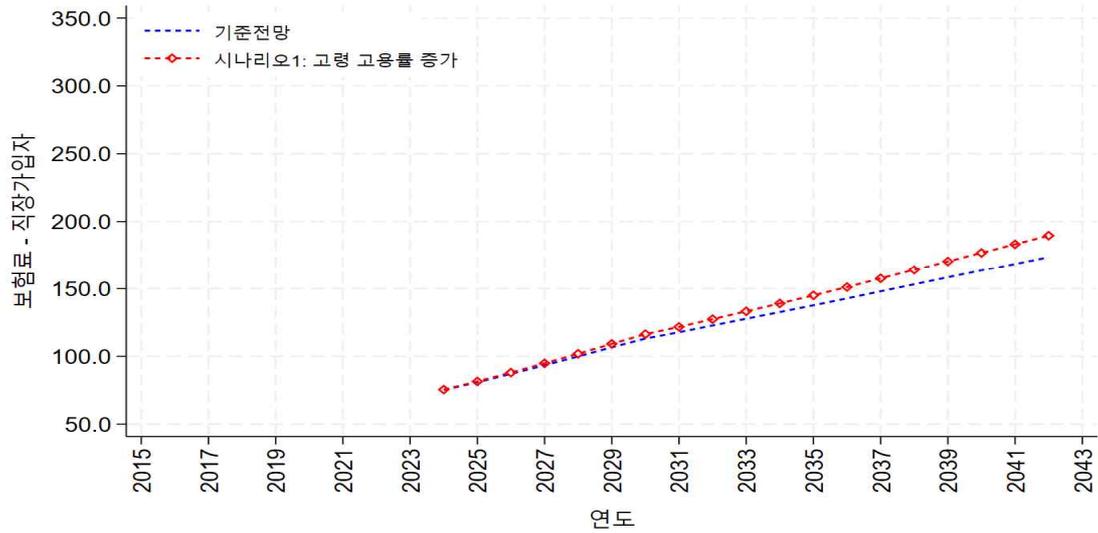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1	증가율
2024	86.1	86.3	0.2%
2025	92.6	93.2	0.6%
2026	99.7	100.7	1.0%
2027	107.1	108.5	1.3%
2028	114.6	116.5	1.7%
2029	122.3	124.9	2.1%
2030	129.9	133.1	2.5%
2031	135.3	139.3	3.0%
2032	141.1	145.8	3.3%
2033	146.9	152.3	3.7%
2034	152.6	159.0	4.2%
2035	158.4	165.7	4.6%
2036	164.3	172.7	5.1%
2037	170.3	179.9	5.6%
2038	176.3	187.1	6.1%
2039	182.3	194.4	6.6%
2040	188.3	201.5	7.0%
2041	194.1	208.7	7.5%
2042	200.0	215.9	8.0%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기준시나리오 173.6조 원에서 시나리오1 189.5조 원으로 9.2% 증가함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보다 기준시나리오 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음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기준시나리오와 같으므로 기준시나리오 대비 전체 보험료 증가율이 직장가입자 보험료 증가율보다 높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화는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과 보험료율 전망이 기준시나리오와 같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수 변화로 인해 발생함

[그림 43] 시나리오1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6] 건강보험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1	증가율
2024	75.2	75.4	0.3%
2025	80.8	81.4	0.7%
2026	87.0	88.0	1.1%
2027	93.4	94.8	1.5%
2028	99.9	101.8	1.9%
2029	106.6	109.1	2.3%
2030	113.0	116.3	2.9%
2031	117.7	121.7	3.4%
2032	122.7	127.4	3.8%
2033	127.7	133.2	4.3%
2034	132.6	139.0	4.8%
2035	137.6	144.9	5.3%
2036	142.7	151.1	5.9%
2037	148.0	157.5	6.4%
2038	153.1	163.9	7.1%
2039	158.4	170.4	7.6%
2040	163.5	176.8	8.1%
2041	168.5	183.1	8.7%
2042	173.6	189.5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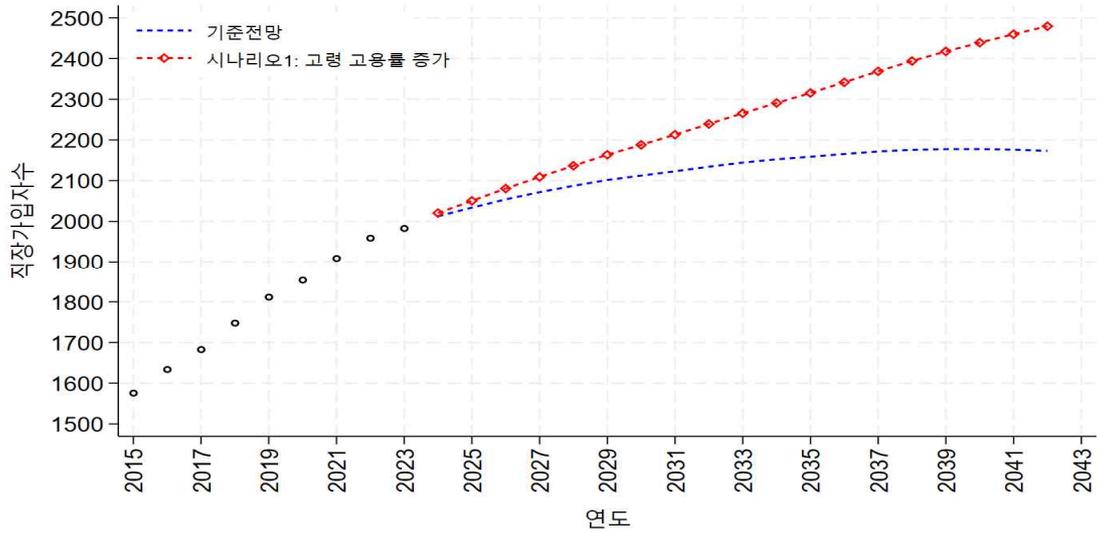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직장가입자 수는 기준시나리오 2173.2만 명에서 시나리오1 2479.5만 명으로 14.1% 증가함
 - 고령 고용률 증가로 인해 취업자 수가 증가하므로 직장가입자 수는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추세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 취업자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은 기준시나리오와 같으므로 직장가입자 수 증가는

고용률 증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짐

- 고령 고용률이 평균적으로 20%p 증가하지만 5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연령별 취업자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이 고령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수는 14% 정도만 증가함

[그림 44] 시나리오1 - 직장가입자수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7] 직장가입자수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1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1	증가율
2024	2012.6	2020.5	0.4%
2025	2033.7	2050.4	0.8%
2026	2054.0	2080.7	1.3%
2027	2071.8	2109.2	1.8%
2028	2087.4	2136.6	2.4%
2029	2101.7	2163.7	2.9%
2030	2112.4	2187.9	3.6%
2031	2123.0	2213.0	4.2%
2032	2134.3	2239.3	4.9%
2033	2144.4	2265.6	5.7%
2034	2152.6	2290.8	6.4%
2035	2158.8	2315.4	7.3%
2036	2165.4	2341.7	8.1%
2037	2171.7	2368.7	9.1%
2038	2175.7	2393.9	10.0%
2039	2177.4	2417.6	11.0%
2040	2177.5	2439.0	12.0%
2041	2176.1	2459.8	13.0%
2042	2173.2	2479.5	14.1%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2. 시나리오2 - 여성 고용률 증가

-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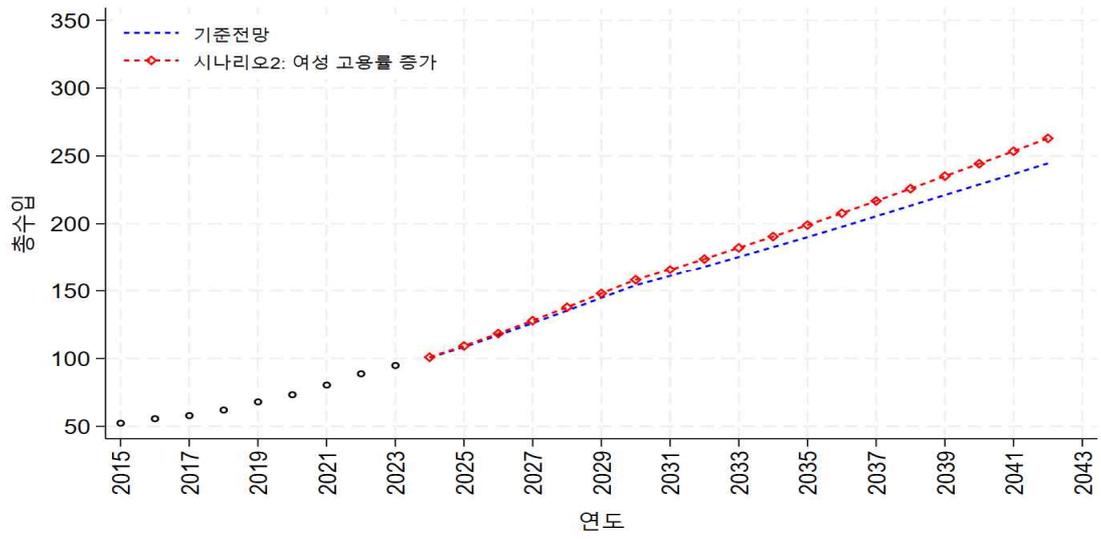
[표 8] 성별 고용률 변화 : 2015 - 2023년

	여성	남성
2015	50.4%	70.9%
2023	55.8%	72.1%
전체격차	5.4%	1.2%
연간격차	0.6%	0.1%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남성 고용률은 1.2%p 증가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5.4%p로 4.5배 정도 증가함
 - 여성 고용률 연간 증가율 0.6%p를 적용해 2042년 이후 여성 고용률을 전망함
- 여성 고용률이 2024년부터 2042년까지 매년 0.6%p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42년 여성 고용률은 69.6%까지 높아져 기준시나리오보다 20%p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
 - 여성 고용률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2042년 기준시나리오 244.5조 원에서 시나리오2 262.9조 원으로 7.5% 증가함

[그림 45] 시나리오2 - 총수입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9] 건강보험 총수입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2	증가율
2024	100.6	100.9	0.3%
2025	108.5	109.2	0.6%
2026	117.1	118.3	1.0%
2027	126.0	127.9	1.5%
2028	135.2	137.7	1.8%
2029	144.7	147.9	2.2%
2030	154.0	158.1	2.7%
2031	160.9	165.8	3.0%
2032	168.1	173.9	3.5%
2033	175.4	182.2	3.9%
2034	182.7	190.5	4.3%
2035	190.1	199.0	4.7%
2036	197.7	207.7	5.1%
2037	205.5	216.8	5.5%
2038	213.3	225.8	5.9%
2039	221.2	235.1	6.3%
2040	228.9	244.2	6.7%
2041	236.7	253.4	7.1%
2042	244.5	262.9	7.5%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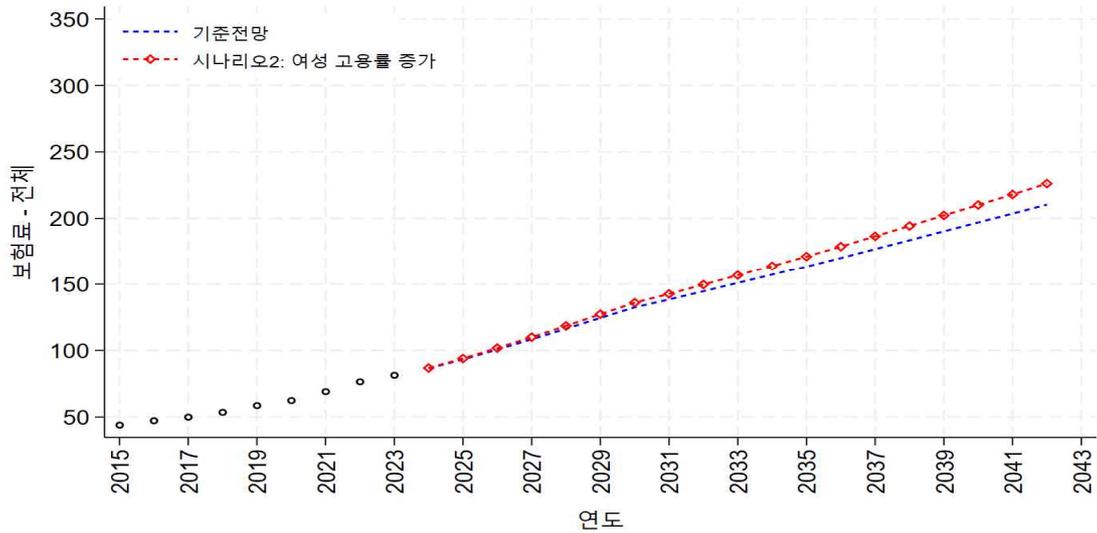
- 기준시나리오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모형의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령 고용률 전망에서 사용된 기준시나리오의 건강보험 수입이 다소 높음

–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설명함

□ 보험료는 2042년 기준시나리오 210.0조 원에서 시나리오1 215.9조 원으로 8.0% 증가함

- 보험료 전망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망은 기준시나리오와 같음
- 시나리오2의 보험료 전망이 기준시나리오보다 높아지는 것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46] 시나리오2 - 보험료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10]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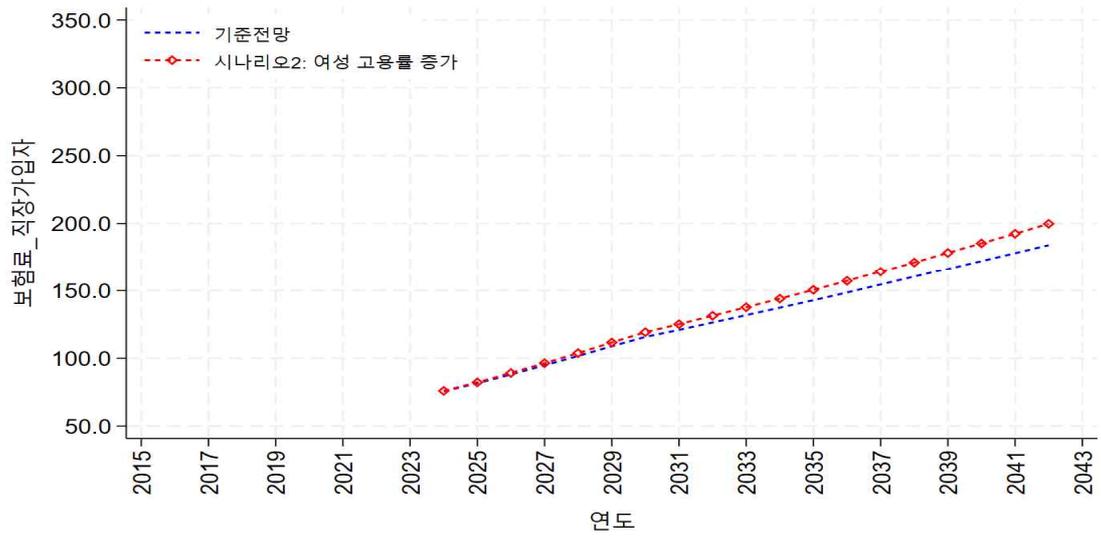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2	증가율
2024	86.5	86.8	0.3%
2025	93.3	94.0	0.8%
2026	100.8	101.8	1.0%
2027	108.5	110.0	1.4%
2028	116.3	118.5	1.9%
2029	124.5	127.3	2.2%
2030	132.5	136.0	2.6%
2031	138.4	142.7	3.1%
2032	144.7	149.7	3.5%
2033	150.9	156.8	3.9%
2034	157.2	163.9	4.3%
2035	163.6	171.2	4.6%
2036	170.1	178.7	5.1%
2037	176.8	186.5	5.5%
2038	183.5	194.3	5.9%
2039	190.3	202.3	6.3%
2040	197.0	210.1	6.6%
2041	203.6	218.1	7.1%
2042	210.4	226.2	7.5%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기준시나리오 183.9조 원에서 시나리오2 199.8조 원으로 8.6% 증가함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보다 기준시나리오 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음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기준시나리오와 같으므로 기준시나리오 대비 전체 보험료 증가율이 직장가입자 보험료 증가율보다 높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화는 연령별 1인당 보수월액과 보험료율 전망이 기준시나리오와 같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수 변화로 인해 발생함

[그림 47] 시나리오2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11]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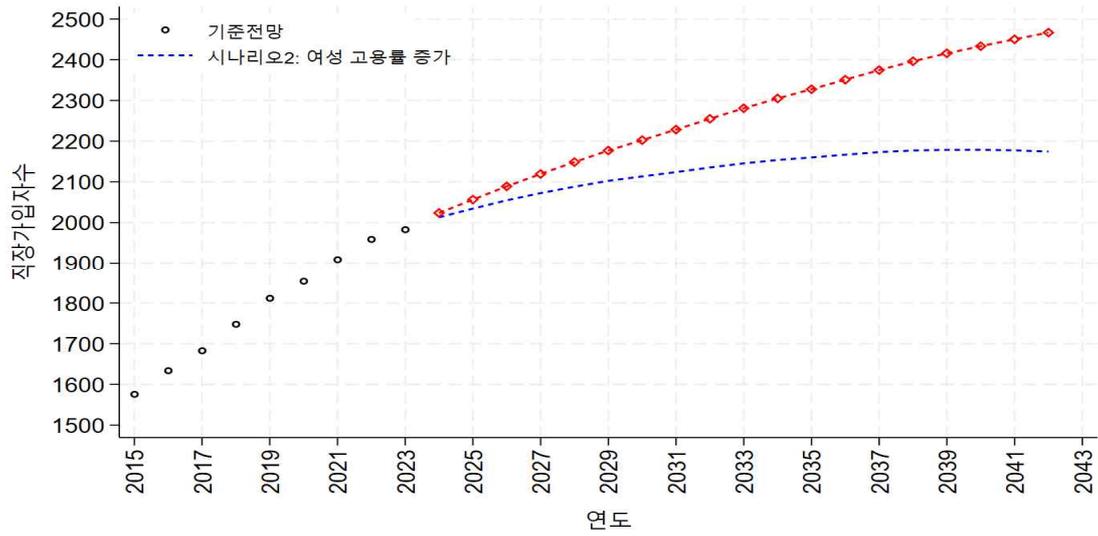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2	증가율
2024	75.6	75.9	0.4%
2025	81.5	82.2	0.9%
2026	88.0	89.1	1.3%
2027	94.8	96.3	1.6%
2028	101.7	103.8	2.1%
2029	108.8	111.6	2.6%
2030	115.7	119.2	3.0%
2031	120.8	125.1	3.6%
2032	126.3	131.3	4.0%
2033	131.8	137.6	4.4%
2034	137.2	143.9	4.9%
2035	142.8	150.4	5.3%
2036	148.5	157.1	5.8%
2037	154.4	164.1	6.3%
2038	160.3	171.1	6.7%
2039	166.3	178.2	7.2%
2040	172.1	185.3	7.7%
2041	178.0	192.4	8.1%
2042	183.9	199.8	8.6%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 직장가입자 수는 기준시나리오 2174.4만 명에서 시나리오2 2466.7만 명으로 14.1% 증가함
 - 여성 고용률 증가로 인해 취업자 수가 증가하므로 직장가입자 수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추세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 취업자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은 기준시나리오와 같으므로 직장가입자 수 증가는

고용률 증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짐

[그림 48] 시나리오2 - 직장가입자수 전망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12] 직장가입자 수 전망 결과 비교 : 기준시나리오 vs. 시나리오2

연도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2	증가율
2024	2013.0	2023.7	0.5%
2025	2034.3	2056.4	1.1%
2026	2054.7	2088.9	1.7%
2027	2072.4	2119.4	2.3%
2028	2088.1	2148.5	2.9%
2029	2102.5	2177.0	3.5%
2030	2113.4	2202.5	4.2%
2031	2124.0	2228.3	4.9%
2032	2135.3	2254.9	5.6%
2033	2145.5	2280.8	6.3%
2034	2153.7	2304.9	7.0%
2035	2160.0	2327.5	7.8%
2036	2166.8	2351.0	8.5%
2037	2173.1	2374.6	9.3%
2038	2177.0	2396.2	10.1%
2039	2178.7	2415.8	10.9%
2040	2178.9	2433.4	11.7%
2041	2177.4	2450.3	12.5%
2042	2174.4	2466.7	13.4%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공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을 (1) 새로운 전망 모형 구축과 (2) 전망 대상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추계 모형을 고도화함
 - 새로운 전망 모형은 가입자 유형별 (1) 가입자 수 전망과 (2) 보험료 전망 방법을 새롭게 구축함
 - 가입자 유형별 전망 대상을 연령별에서 성별-연령별로 확장해서 전망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함
 - 이와 같은 고도화 방안은 장기재정전망과 장기경제전망의 결과들과 연관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정책변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가능하게 하도록 모형을 개선함
 - 특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전망하는 방식을 통해서 장기경제전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시나리오 등에 대한 분석을 건강보험 수입 추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함

- 가입자 수는 (1) 고용률(= 총인구 대비 취업자)과 (2)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으로 구분해서 전망하는 방법으로 전망함
 - 기존 모형들은 총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만 전망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 변화로 인한 효과와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 변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총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 증가를 분석하는 경우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총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을 고용률과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으로 구분함으로써 경제 상황의 효과(고용률)와 정책 효과(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중)를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음
 - 고용률 변화를 반영할 때, 장기경제전망에서 제시된 고용률 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보험료 전망에 사용되는 1인당 보수월액과 1인당 부과점수 전망 부분에 1인당 명목 GDP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함
 - 정책변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이나 부과점수당 금액과 경제변수에 해당하는 1인당 보수월액이나 1인당 부과점수를 곱해서 이루어짐
 - 1인당 보수월액이나 1인당 부과점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기존 모형은 이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본 모형은 1인당 보수월액과 1인당 부과점수가 1인당 명목 GDP에 의해 변화는 경로를 고려함으로써 두 변수의 추세가 1인당 명목 GDP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
 - 1인당 명목 GDP 전망은 명목 GDP 성장률 전망과 총인구 전망을 이용해 전망 가능
 - 1인당 보수월액과 1인 부과점수 추세 변화는 1인당 명목 GDP 추세 변화로 연계해서 전망하는 장점이 있음

- 새로 구축된 모형을 이용해 건강보험 수입 추계를 한 결과를 최근 연구(김윤희, 우경숙 (2024))과 비교함
 - 2024년부터 2042년까지 전망 결과를 비교하면 2032년까지는 유사하지만 2033년 이후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직장가입자 수 전망 방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새로 구축된 모형을 활용할 때, 남녀로 구분해서 전망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망에 비해 총수입과 보험료 등이 다소 높게 추계됨

- 새로 구축된 모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용률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시행

- 고령 고용률 (55세 이상 인구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을 증가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기준시나리오와 비교함
- 고용률 변화 시나리오는 기존 모형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움
- 새로 구축된 모형은 장기경제성장 전망 결과를 적용해 성장률 변화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임슬기,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2023, 국회예산정책처

김윤희, 우경숙,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2024, 국회사무처

